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신입생 입학수기  
당선작 모음집

함께 끼  
이루는 꿈



세종대학교

<b>대상</b>	내일을 상상하고 계신다면, 창의인재전형으로 지원하세요!	
	경영대학 경영학과 최예림	6

<b>최우수상</b>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최아름	14
	내가 이 곳에 오기까지!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윤지	19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이진희	23
	행동 없는 비전은 공상일 뿐이다.	
	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공학부 이지현	26
	못난 학생의 공부하는 방법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 육종현	31
	아름다운 도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김재범	3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도,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	
	자유전공학부 어호정	46
	좋아하는 분야에 한번 미쳐봅시다!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한서현	61
	세종대에서, 봄을 맞이하다.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박홍연	67

<b>우수상</b>	세종대학교의 ‘창의’, ‘능동적 자세’와 ‘합격’을 안겨준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건미	74
	1대 1을 뚫어라!!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현승	81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고 계획하고 목표하자.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을 세종대에서 시작하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윤성훈	91
	주체적으로 진심을 다해 하면 합격의 길은 열린다. - Do What You Love!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오민정	98
	아마도 꽤나 희망적일 합격후기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이해진	103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공학부 황은비	110
	멀어지듯 가까워지더라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 김혜은	115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이소정	121
	합격하고 싶다면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이현승	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학에 왔다	
	자유전공학부 윤종현	132
	지금 이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후회하게 된다.	
	자유전공학부 이민구	139
	6년간의 노력의 결실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이지한	148
	원하는 삶을 위한 두 번의 도전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임채경	155

함께  
이루는  
꿈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수기  
당선작 모음집

대상



 세종대학교

# 내일을 상상하고 계신다면, 창의인재전형으로 지원하세요!

## 경영대학 경영학과 최예림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상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졸업할 때까지 내야 할 약 3200만원의 등록금과 대학생활동안 일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8000만원은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대학을 들어오기로 결정했다면, 그만큼 대학이 여러분께 줄 기회를 기대하신다는 거겠지요. 왜 대학을 오고 싶은지, 대학 와서 무엇을 할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셨나요? 세종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놓은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저는 2016년 수시모집 창의인재 전형으로 세종대에 합격한 16학번 경영학도로서 앞으로 창의인재전형을 준비하는 미래세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일단 처음 할 일은, 이 대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대학이 왜 여러분을 뽑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A4를 한 장 꺼내서 이 두 질문에 대답해보길 바랍니다. 뭘 하고 싶은지, 왜 대학에 오려하는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람들이 도전과제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SNS 사이트 설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해 경영의 E-Business나 마케팅을 전공하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문과생이 복수전공 전 프로그래밍을 들어보려면 비교적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1학년 2학기는 되어야 들을 수 있고, 이마저도 기초로 들을 만한 과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공학생들만 채워진 상태라 학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통해, 세종대는 같은 학과 학생들과 프로그래밍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강의를 통해 내가 가려는 E-BUSINESS의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복수전공을 시작하기에 매우 적합한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세종대가 제 꿈을 이루는데 도와줄 대학교라 생각했고, 그래서 세종대 경영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대학특성과 설명을 보기 위해선 학교 입학지원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홍보실페이지에는 이 학교 학생들이 이룬 성과들이 있고, 학사과정에는 전공설명과 전공과정, 교수님 소개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학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대학을 들어와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대학이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대 창의인재전형은 '세계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창조형 인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봉사하는 인재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즉 그 말은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핵심을 녹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세종대가 강조하는 첫 번째 '세계화에 중추적 역할을 책임질 미래 창조형 인재'에 맞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기획이 국가와 세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강조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봉사하는 인재상'에 맞게 이 사업이 개인에게 어떤 이점을 줄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봉사계획을 세운 게 대학입시 때문에 인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 거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도 추가했습니다. 자소서엔 이런 사고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확립시켜줄 독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얼 하고 싶다가 나와야 앞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 1학년부터 확립하는 학생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어렵פות한 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도중에 진짜 꿈을 찾기도 하죠.

사실 꿈을 향한 목표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만큼 어느나에 따라서 목표는 계속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광고기획자를 생각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광고가 아닌 기획에 흥미가 붙었고 3학년 초엔 아예 처음과 다른 E-Business CEO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이러한 장래희망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3학년 내내 같은 꿈을 위해 달려가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로희망을 바꾸지 않으려고 억지로 맞지도 않는 1학년 장래희망에 과를 끼워 맞추는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하고, 분명한 이유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장래희망이 종합전형에선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광고기획자->광고기획사의 CEO->콘텐츠관련 E-Business CEO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알아가려면 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책은 그 긴 시간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또, 새로 발간된 책도 현 시간에 가장 자세히 전공을 정리한 보고서이죠. 저는 아무리 못해도 2주일에 1권은 꼭 읽었습니다.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지만, 문이과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전공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에는 전공과는 멀어 보이는 책도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책에는 경영도서도 있지만, 데이터분석관련 책, 적정기술 디자인 책도 있었습니다. 혹시 꼭 2주일에 1권은 읽어야 한다고 시험기간에까지 무리하게 책을 읽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끝나면 다시 천천히 읽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고등학생 때까지 책을 읽는 게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돌이켜보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 <평소 책을 읽으며 생각의 깊이를 키웠다면 이를 활용하는 활동을 해야겠죠?>

심화학습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해봐도 좋고, 사회참여 동아리에 들어 봉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마땅한 동아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과감히 만들길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꼭 경영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지만 교내에 없어서 1학년 때 직접 만들었습니다. 갓 입학한 신입생이 3월 달에 어떻게 다른 부원을 끌어들이고 담당선생님을 구할 수 있겠냐 싶으시겠죠.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야 겠다 생각한 다음날, 학교 복도 칠판에 분필로 문답을 낸 설치광고를 그리고 ‘혼자봐도 괜찮다. 나도 신입생이라 혼자다’는 식의 동아리전단지를 복도에다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 경제를 원하는 신입생이 처음만나서 친해진 친구, 또는 같은 중학교를 다녀 친한 친구와 같은 꿈을 가질 확률은 낮은 것 같으니, 만약 단순히 전단만 붙이면 친구랑 같이 동아리를 들기 위해 경영 대신 전공과 맞지 않는 동아리를 고를 수도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적은 뿔뿔이 흩어져있을 경영경제를 좋아하는 학생을 찾는 거였죠. 덕분에 전단을 붙인 지 3일만에 정원이 가득찰 수 있었습니다. 원래 12명으로 생각해뵈던 정원을 16명까지 늘리고도 계속 연락이 와서 아쉽지만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장해야 할 정도로요. 또, 선생님은 모든 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부탁드려 구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이라고 안돼. 3학년이니까 안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건 확실히 자기 것일 수도 있었던 굉장한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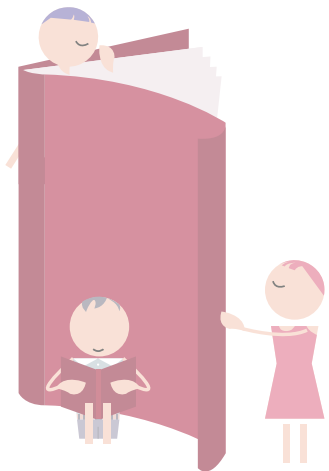
활동을 결정하기에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그것이 너를 강조하는 특색있는 활동인가. 2. 혹시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이 아닌가.’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 ‘자소서엔 몇 개 못쓰니 많이 하지 말고 질 높은 것을 해라.’ 저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지만, 자소서에 쓴 건 경영동아리와 교내경제수업 때의 토론, 콘텐츠제작 관련 교내대회, 2014 소셜벤처공모전 뿐입니다. 해외연수나 대학수업을 들었던 것, 심화학습동아리, 반장활동, 경제기자단은 다 생략했습니다. 자소서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무작정 집어넣으면 글 전체가 혼란해지고 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몇 가지 활동을 깊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 <대학이 나를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내신’으로 이뤄집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에 가장 크게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스펙이 좋으면 내신이 엄청 낮아도 가능할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5등급이 인서울갔다. 이런 사례는 알고 보면 그 학생이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거나(눈이 안보이거나 귀가 안들리는), 또는 5등급인데 특목고에서 5등급이라 내신엔 영어 5등급이여도 토익이 900이 넘어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니까 내신이 낮으려면 내신은 낮되 학습은 잘하고 충분하다는 걸 자소서에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종합전형전형은 공부 안해도 돼.’ 이런 전형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종대에서는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지만,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종합 평가하기에 성적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구요. 꼭 시험 잘 준비하고! 수행평가에 사활을 거세요! 스펙이 엄청 좋아도 내신이 나쁘면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 <이렇게 여러 가지 강조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만 고등학교 생활을 전부 보내지 말고, 고등학생 때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충실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달릴 때 즐거워야 바람직한 인생이겠죠? 항상 삶의 충실한 모습으로 매일을 달려가세요. 그 결과, 내년엔 세종대에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페이스를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혹시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도 주눅들지 마세요.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루는  
꿈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수기  
당선작 모음집

## 최우수상



#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최아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경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꿈이었을 만큼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어를 접한 때는 4살 때 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어울려 놀던 7살 언니가 그 당시 영어를 모르던 저를 무시하여 어린 복수심에 엄마께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졸라 영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엄마와 저는 실생활에서 간단한 회화(목말라요, 배고파요, ~주세요 등)를 영어로 말하였고 집 안에서나 이동 중 차 안에서 영어chant CD를 틀어 영어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버스 안에서 영어로 외국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뻛고 거리낌없이 외국인과 대화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져 더 많은 외국인들과 대화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저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영어로 된 글을 하루에 한 개 이상은 꼭 읽었고 주말에는 미국드라마를 챙겨보며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말을 익혔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는 꼭 외우고 말겠다는 생각이 아닌 단어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번 보고 끝이 아닌 여러 번 자주 보아 단어가 익숙해지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단어를 검색해 제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고 교내 영자신문부 활동을 하여 영어를 읽고 문제 풀 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영어를 말하고 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싶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성조라는 발음요소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단순히 취미로 중국어 공부를 일주일에 두 세 시간 정도 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단순한 취미가 특기가 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하자 공부시간을 하루에 1씩, 일주일에 총 7시간 전후로 늘렸습니다. 공부 내용도 기본회화에서 보다 전문적인 언어공부로 바뀌어서 단어도 따로 외우고 글짓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교재를 구입해 CD를 듣고 따라하며 발음과 성조를 익히고 듣기 능력도 향상시키고 교재에 나오는 상황을 이용하여 글짓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어를 실생활에 응용하고자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해온 중국어의 발판을 이용해 중국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학교 중국어 선생님께 첨삭을 받으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어 자막 없이 영화와 중국 예능, 드라마를 보며 딱딱한 교재를 넘어 중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용문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방송을 알게 되며 접하게 된 중국 가요는 저의 편견을 깬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국풍 노래가 중국 노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중국 가요, 특히 周杰(zhoujielun)의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멎을 정도로 듣기 좋았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늘어 회화가 가능해지며 차이나타운과 같은 중국인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대림이라는 곳은 게시판의 글이나 간판, 메뉴판들 모두 중국어로 써져 있었고 거리에서 파는 물건이나 식재료도 모두 중국 것,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옆에 아홉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자장면이나 탕수육 같은 한국사람 입맛에 맞춰진 중국음식이 아닌 중국 현지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주일 동안 베이징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에겐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음식과 중국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중국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졌고 중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마냥 좋아만 하던 외국어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대학을 알아보던 중 세종대학교가 아주 훌륭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국제학부’라는 학부로 입학해 1학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약 없이 선택해 들을 수 있어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학과는 ‘2+2학년’ 복수학위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중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중어중문학과’가 아닌 ‘중국통상학과’로써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세종대학교가 저의 꿈의 대학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한중 통상 교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창의인재전형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별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연습 또한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자기소개서 글감을 찾고 글을 썼습니다. 저의 자기소개서 작성 목표는 제 생각과 마음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했던 내용을 쓸 때에는 그 때 당시 제가 어떻게 노력했었고 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글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다 썼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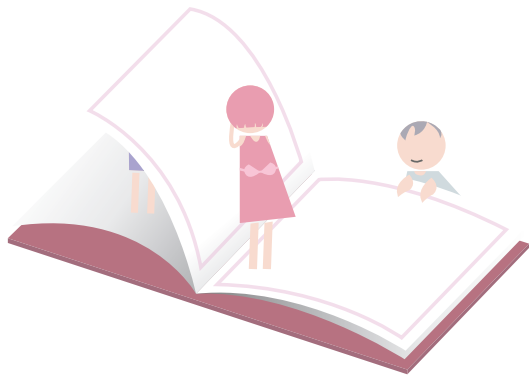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 번도 면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저는 면접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연습 또한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2번 남들보다 1시간 반 일찍 학교에 가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서로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함께 추려보고 그에 대한 알맞은 답변까지 서로 코칭하며 면접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마무리가 되자 입장과 퇴장, 걸음걸이와 말하기 속도, 크기, 말할 때의 안좋은 습관 등에 대해 서로에게 조언하고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접을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면접연습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다 객관적으로 서로를 관찰해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 내가 이 곳에 오기까지!

###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윤지

이러한 면접 연습 덕분인지 실제 면접을 볼 때엔 긴장을 별로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적은 긴장감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또렷하고 조리 있게 말 할 수 있었고 면접을 보는 동안 입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습니다. 면접관들께서도 저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칭찬하셨고 그 미소 덕분에 면접 분위기가 매우 좋아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쳤습니다.

제가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는 저의 꿈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매우 힘들다고들 하지만 저에게 입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살면서 딱 한번일 수 있는 대학교 입시, 이왕 할거면 더 열심히,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는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끝맺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다 보니 ‘몰입’이라고 교수님께서 그러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살면서 제가 가장 ‘몰입’했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인생에 한 때뿐인 고등학교 3학년, 즐기면서 ‘몰입’으로부터 얻는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2015 THE 세계 대학평가 국내 14위’,

‘2015 QS· 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18위’,

‘교육부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어디에 내어놓아도 굴하지 않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교는 나의 캠퍼스가 되었다. 2016년 3월, 나는 간절히 바랬던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새내기가 되었다.

나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지 등과 같은 정보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봉사나 비교과 활동들을 위주로 보는 전형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했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종합전형인 ‘창의인재’ 전형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나는 고2 후반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어떤 자원에서 비롯하는지, 자원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등과 같이 자원에 대해 배우고,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인 '석유'에 대해서, 또, 현재 떠오르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기에 '에너지자원공학과'를 목표로 하였다. 내가 목표로 한 과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보고, 세종요람을 통해 과목에 대한 더욱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접하였다.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꿈 말하기 대회', '교내 물리·화학동아리 활동', '물리 자율동아리 개설 후 활동', '전교학생부회장', '한국 잡 월드 직업체험', '진로초청강연', 'WISET 실험실', '공부일기 경진대회', '영단어암기 대회', '학습 플래너 경진대회' 등등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비교과활동을 하였다. 어떤 분야든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활동들은 나의 목표에 대해 내가 더 확신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었고, 체계적인 정리를 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어떤 것들은 나의 리더십이나 책임감 등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었다.

나는 이러한 비교과활동들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관련된 교과공부 관련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생활기록부에서 교과세부특기사항과 같은 곳에서 잊어버린 내용이나, 헛갈리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가기위해 각 과목의 선생님들을 붙잡아가며 다시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노트에 마인드맵으로 각 항목별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인드맵을 통해 미리 내용을 정리한 뒤 자기소개서를 썼고, 딱딱할 것 같은 자기소개서에 눈에 띄는 소재목을 붙여 시선을 끌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보고 하나의 사소한 내용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었다. 이 때 질문은 혼자 만든 것도 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하였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까지도 짚어볼 수 있었다. 또, 이 질문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였다. 친구들이 면접관이 되어주어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 외에도 여러 번의 모의면접을 해볼 수 있었다. 혼자서 준비를 할 때는 빈 교실을 이용하였다. 빈 교실에서 나 혼자 질문을 보고 목소리 톤과, 속도 등을 조절하며 준비하였다.

자연계로 진학한 나는 가장 중심과목인 수학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쉬운 문제도 종종 틀렸고, 잦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보았는데 내 옆에는 '답지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답지를 쉽게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사물함에 답지를 넣고 꺼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문제를 풀다보니 친구들에게는 쉬운 문제였지만 나에게서는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답지를 볼 수도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였고, 2~3시간에 걸쳐 한 문제를 풀 때도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성취감이 하늘로 솟구쳤다. 풀리지 않아 끔찍대며 골머리를 앓았지만 계속된 도전 끝에 문제의 답이 나왔고, 이는 나에게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 어떤 문제는 다시 풀어보면서 기존과는 새로운 방식의 풀이를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습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이진희

나는 매일매일 복습하는 습관을 가졌다. 사실 나는 벼락치기 케이스에 속했다. 하지만 화학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화학과목 만큼은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다시 공부하고 복습을 하였다. 나는 이 복습에 공부일기를 더하였다. 공부일기를 쓰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빼먹은 내용이나 틀린 내용들을 파란색 펜으로 다시 적어보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았다. 이러다보니 성적도 오르게 되었고, 복습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면서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복습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플래너를 꼭 작성하였다. 처음에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했지만 그 차이를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 플래너를 작성했을 때 확실히 시간 낭비가 적었고, 그날의 목표는 꼭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며,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비교과활동들과 공부법을 가지고 합격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이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세워 시간을 절약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또한 나의 중요한 목표라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16학번 이진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세종대학교 합격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시모집 창의인재전형을 통해 18: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세종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이 커다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저만의 학생부종합 준비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세종대학교를 알게 된 것은 조선일보를 구독하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NIE활동으로 만나게 된 선생님 한 분께서는 제게 ‘신문스크랩’을 제안하셨고, 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신문을 스크랩하던 중 “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20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치기에만 바빴던 정보가 어느 날 제게 이러한 생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자하는 나의 목표는 무엇이지?’ 이 조그만 생각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신문방송학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별 이념을 검색해보며 나와 맞는 학교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대학교 총장님의 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공감, 나눔, 세계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형상시켜줄 수 있는 대학교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담임선생님과 진로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과 의 지속된 상담을 통해 세종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활동을 찾아갔습니다.

세종대학교 입학 을 위해 준비했던 첫 번째 활동은 ‘토론논술동아리’였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 앞에서 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을 선택했습니다. “행복, 소비, 성매매”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니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담긴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은 저를 ‘전국 독서 새물결 대회’의 충북대표로 엄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결승전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하였지만 저는 그 날 우승보다 더욱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했던 활동은 ‘조선일보 이슈토론 글쓰기’였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선생님과 저희는 ‘우리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자.’를 급훈으로 삼았습니다. 신문사별로 신문을 읽으실 정도로 평소 신문에 관심이 많으신 담임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조선일보 NIE대회 이슈토론 글쓰기에 참여해보지 않을까?”라며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평소 서로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던 저희는 선생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슈토론 글쓰기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한 친구가 한 기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 그에 대한 다른 친구가 생각을 적고, 또 다른 친구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방식. 마치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처럼 조금씩 이어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는데 글을 쓰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타인의 생각을 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만을 쓰기에 바빴던 우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제 글쓰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활동들을 하느냐가 아니라 조그만 활동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활동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준비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대학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느껴왔는지에 대해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이득이 될 활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꽃의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준비 잘 하셔서 모두 세종대학교에서 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동 없는 비전은 공상일 뿐이다

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공학부 이지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시스템학부에 16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지현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대학들 보다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대학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뉴스 기사를 통해 그동안 궁금해 했던 줄기세포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연구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 꿈에 대한 확신을 준 세종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33: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세종대학교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들을 소개 해볼까합니다.

###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메테틱스’: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

새로운 배움과 경험에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1때 학교에서 주최한 대학진로박람회에서 바이오 학과 소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바이오란 학문을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학문’인 줄만 알았던 제게 대학 선배가 설명해 주는 바이오 학문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바이오란 학문에 관심이 생겼고 흥미에만 그치지 않고 바이오에 관련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 중 책 <바이오메테틱스>에서 동물들의 지능적인 생존기술을 모사한 생체 모방 기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북복의 체형을 모사한 자동차’, ‘홍합의 점액을 응용한 접착제’ 등이 있었고 그중에 소개된 ‘맛조개 로봇 클램: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토양을 액화시켜 땅을 굴착할 수 있는 로봇’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생명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지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제게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교과이론을 벗어나 과학교양 시간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바이오메테틱스’의 출발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중 생존경쟁에서 가장 우수한 종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토대로 생겨난 기술이라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화에 관한 포스터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만 치우친 공부는 무의미 하다는 것을 느꼈고 진정한 학업의 길은 그 과정을 토대로 더 탐구하고 확장해가는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해보는 자세가 재학 기간 동안 저에게 생명분야의 꿈을 가지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를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 -학교 공부만이 유일한 커리큘럼이 아니다.: 공부 방법에 대하여

물론 학교에 틀에 맞춘 커리큘럼도 입시 준비를 위해 중요하지만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관련된 책을 즐겨 읽기도 했지만 동아리 통한 모르던 다양한 지식, 보고서 작성법, 팀워크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직접 느끼며 정형화된 공부만 아닌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으면서 암기하는 공부 방법이 아닌 보고 느끼는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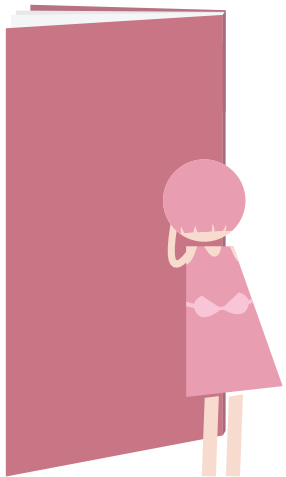
첫 번째로 동아리 과학토론회에서 참여한 YSC 과학탐구대회에서 1년 동안 '치약 속 연마제에 의한 치아 마모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돼지 등뼈와 전동 칫솔을 이용하여 하루에 3번씩 양치실험을 진행하였고, 돼지등뼈에 나타난 마모도를 미세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습니다. 저는 조장으로써 실험결과를 틈틈이 기록하여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보고서이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어진 형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해보았지만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한 연구들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물을 낳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회의와 선생님과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중간점검으로 다녀온 청소년 과학캠프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보고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 제가 강조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성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입부에 구체적이 탐구동기를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였고 결론에 단순히 탐구 결과만이 아닌 천연치약 만드는 법을 제시하여 한 발 더 나아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었고 또한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 속의 화학'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화학 골든벨에 교과가 아닌 실생활에서의 화학을 접하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골든벨 준비를 위해 음식에 관련된 화학적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고 같이 준비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피드백도 하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부족했던 점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놓친 개념들도 있었지만, 너무 화학이란 학문에만 집중하다보니 연관된 다른 학문들과 경계선을 긋는 나쁜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학문에 정진할 때는 제한된 범위에서가 아닌 통합적인 해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식을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관 지어 탐구를 실행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 속에 존재하는 화학을 배울 수 있었고 유전을 다룬 과학경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융합 학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 한 분야에만 국한된 연구결과가 아닌 융통성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이러한 참여형의 공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닌 나만의 길로 감으로써 기억에 평생 남을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많은 기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기회들을 만났고 놓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싫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 약한 제가 영어스피치대회에 참가하여 서툴지만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덕분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세종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예비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동 없는 비전은 꿈일 뿐이다”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의지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말 그대로 단지 꿈일 뿐입니다.



## 못난 학생의 공부하는 방법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 육종현

안녕하세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세종대 영화연출과에 합격한 신입생 육종현이라고 합니다. 합격 수기를 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보고,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공부’와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란 무엇인가요? 학교에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영어나 수학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또는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가 생각하는 공부의 개념일 것입니다. 저는 그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공부뿐인가요? 학교에 제대로 출석도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 후유증이 남아 학교에 오래 앉아있을 수 없었던 저는 매일같이 조퇴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식으로 고등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변명 같지만 수업도 못 듣고, 공부할 여건도 되지 않았죠. 성적은 당연히 하위권. 그렇게 학교를 매일같이 조퇴하고 성적도 하위권에 머물던 병약한 소년인 제가 세종대에 들어갈 거라곤 그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런 못난(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기준으로)학생인 제가 세종대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떠나 대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도 없이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입시공부는 지옥과도 같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고3들은 입시를 앞두고서도 자신의 꿈이나 목표에 확실한 비전이 없이 그저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사실 이 합격 수기를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좋은 수기가 될까 인터넷에서 올라온 합격 수기들을 몇 개 찾아 읽어봤습니다. 다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창의적인 공부 방법, 또는 평범했던 자신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는가 등등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이 점수를 받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재미있게 풀어놓았더군요. 대학은 단지 좋은 점수로 갈수 있는 좋은 직장을 향한 문이 되어선 안됩니다. 대학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문을 깊게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꿈과 목표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꿈이란 직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고픈 소망이 꿈이죠. (물론 이루고픈 소망이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꿈은 거창할 수도,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적한 카페를 차려 손님들을 받는 것도 꿈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또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밟아가야 하는 계단을 말합니다. 카페를 차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남들 시선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 것과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디스크를 핑계로 학교에서 조퇴를 많이 하면서 치료가 끝나고 남은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이라는 목표가 생겼죠. 목표가 생기면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전 좋은 대학의 좋은 영화과를 가기 위해 수능 점수를 올릴 생각도, 수시로 합격하기 위해 내신 점수를 올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만드는데 이 입시공부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제 영화에 대한 공부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시간에는 주구장창 영화만 봤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허리에 치료용 복대를 두르고 남들 다 학교에 있을 시간에 영화관으로 향했었죠.

다만 남들과 다른 점은 영화를 반드시 두 번 봤다는 건데요, 한번은 관객의 입장으로써 순수하게 영화를 즐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화감독으로써(물론 아직은 되지 못했지만)그 영화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뜯어보고, 이 영화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주제를 밀고 나가고, 어떻게 관객들을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대하여 말이죠. 영화를 보면서 메모장을 들고 생각나는 것들을 전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시도 때도 없이 보며 그 영화를 떠올리고, 그 영화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멀리했죠. 다양한 작품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비단 영화 뿐 아니라 모든 예술인에게 해당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많이 보지 않으면 자신의 눈높이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을 기초로 발판을 세우고 나니 더욱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고 싶어진 저는 기본중의 기본인 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읽기 쉬운 오스카 에이지의 캐릭터 만들기부터 어려운 책인 로버트 맥키의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까지 나름 이름 있는 책들을 모두 섭렵하고 다녔죠.(책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발을 한번 들이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역시나 책들도 반드시 두 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교 합격 수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예습 복습처럼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에는 한번으로는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니다.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짝! 긋고 거기에 예시로 나온 영화들은 책갈피를 해 놓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은 메모지에 적어 벽에 붙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영화를 보다 책에서 본 내용이 떠오르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책을 흡수했었죠.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의 척도가 어디쯤인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책이라는 것은 비단 문학을 넘어 인생의 선배, 선생님께서 죽을 때 까지는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영화와 책들을 기반으로 드디어 영화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다음 목표로 생겼죠.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친구들을 모아 각본을 짜고, 카메라를 렌트하고, 처음 만져보는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느라 맨땅에 헤딩한다는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렇게 작품도 만들고, 제 나이 또래의 감독이 만든 다른 작품들도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공부가 그렇게 즐거웠던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영화를 찍고 시나리오를 써냈죠. 그리고 나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제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만 작품을 만들어서 마이웨이를 걷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쪽이 성장하기에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몰랐던 연출, 나는 생각하지 못한 신박한 소재, 감탄이 나오는 천재들의 작품!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선 앞만 보고 달리기 보다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어떤지, 신고 있는 신발은 무엇인지를 알고 달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은 저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입시 공부는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뒷전이고, 허구한 날 영화에 빠져 사는 양아치쯤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정신을 차리라느니, 이리다 속된말로 ‘지잡대’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보이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에겐 명확한 꿈과 목표,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내신6등급, 모의고사 7등급이라는 어마무시한 점수를 받은 상태로 수시를 넣어야 했었죠. 대다수 영화과는 내신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40퍼센트에서 높으면 80퍼센트 정도가 대다수였습니다. 수시를 써주시는 선생님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실랑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린학생의 생각처럼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6개의 수시 응시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내신이 낮은 탓이었는데 면접에서는 학교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져 정작 공부했던 영화에 대한 지식을 말 할 틈이 없었죠. 그 때 당시 저는 남들과 똑같이 입시공부를 했어야 하나 후회막심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의 대학에서 탈락 통보를 받고 마지막 세종대 면접에서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질문으로 나오더군요. 아마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면접관 교수님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았습니다.

## “영화가 왜 하고 싶니?”

이 질문은 좋은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대답 할 수 없는, 반대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꿈인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두근거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듣고 싶은 질문이었지만 다른 5개의 대학에선 이 질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던 참이기도 했구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스스로 공부하면서 느낀 그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자만이 대답 할 수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저는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 너무나 개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운함은 무엇이였을까요?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입시공부를 피나게 하고 고사장을 떠난 학생들도 과연 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답은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느낀 이 개운함만큼은 명확하게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꿈과 목표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는 그 희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 세종대 면접에서 영화가 왜 하고 싶은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저 질문에 대답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긴 시간 꿈을 꾸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발표 날 당시, 내신40프로, 실기40프로, 면접20프로로 이루어진 세종대학교 영화연출과 수시 시험에서 내신6등급인 못난 학생이었던 육종현은 당당하게 합격했고, 학교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 아름다운 도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김재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공부에 집중을 잘 하는지, 또는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목표에 좀 더 차분하게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꿈과 목표에 다가갈 것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꿈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수능1등급, 또는 서울대, 인 서울 등등 누구나 할 법한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꿈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이해를 못했고, 그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었겠죠. 적어도 이 수기를 읽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종대 면접에서 들었던 영화가 왜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막힘없이, 그리고 즐겁게 대답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 ‘그 꿈을 왜 이루고 싶니?’

라는 질문에 막힘없이, 즐겁게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천체관측과 천문학은 다정한 친구처럼 저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별을 관측하고 관측일지 작성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흥미로워 관측을 하는 매 순간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저도 진학 목표와 원하는 학과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취업도 잘되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는 전공과 대학을 원하셨고 저 또한 당시 고등학교에서 막 입학한 어린나이의 학생이라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을 제가 꼭 이루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조언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체관측과 천문학 말고는 그 어느 학과와 학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과로 진학을 해도 과연 내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잠시 동안 내신공부를 포기하고 지구과학2 과목과 기초적인 천문학 책, 그리고 천문학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천문학이 너무 재미있다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오로지 천문학과로의 진학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고 어려운 학문만큼 대학 진학 후에 도중에 포기할까봐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 가다간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이 생겨 버릴까봐 두려움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반대는 천문학에 대한 저의 열정을 키워만 갔고 이후 저는 천문학과로의 진학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천문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모님께 증명하고 싶었고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아닌 천문학 관련 스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4월부터 과제연구를 시작하여 기초적인 천문현상에 대한 탐구를 했고 약 7개월간 지속된 연구 끝에 수석 연구보고서라는 명예롭고 과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어 저는 수능 및 2학년 예습이 아닌 부모님을 완벽하게 설득하고자 지구과학, 천문학 등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암기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익혀 나아가면서 더욱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결국 2학년이 되어 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NYSC(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연구동아리, 경시대회 학교대표 등 모두 선발 되면서 결국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고 세종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었던 활동은 NYSC에서 성단측광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흔히 측광연구를 하기 위해서 IRAF를 사용하는데 연구팀에 선발된 인원 중 IRAF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고 결국 저희 팀은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측천문학으로 저명하신 세종대학교 S교수님께 저는 메일을 통해 자문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입시에 몰두해야할 고등학생이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셨고 성공적인 입시를 통해 대학 진학부터 한 후에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질책하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천문학이 좋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지만 입시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 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님의 질책 덕분에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에 진학하여 S교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학교 천문학과로 진학을 한 후 대학원을 통해서라도 S교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엔 교수님의 질책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었지만 그 뜻은 평소 제 자신이 자만하고 있었음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종대학교로 진학을 하고자 했고 S교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측광연구에 실패를 했지만 S교수님과 한통의 메일 덕분에 저의 세부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현실을 직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신 성적과 수능 공부를 준비하고자 했지만 막막했던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재수, 삼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 한 후 천문학과로 진학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로지 천문학과 관련된 스펙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몰두했었습니다. 그 결과 내신 성적은 좋지 못했고 심지어 2학년이 되면서 과학중점과정으로 진학해 상대평가인 내신 성적을 받기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언젠가 천문학과로 진학을 하기 위해 차근차근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2학기가 되어 최종 내신 성적이 산출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지원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부족하여 선생님께서는 세종대학교 지원을 포기하라고 저를 극구 말리셨지만, 관측천문학자라는 확고한 목표와 원하는 학과가 있었기에 저는 수시지원에서 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창의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를 포함한 천문학과가 개설된 5개의 학교에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치기 전 2개의 학교에서 1차합격자 발표를 확인해보니 모두 떨어졌었고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수능까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 다음날 나머지 학교의 1차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는데 모두 떨어져 좌절을 하고 있을 시기에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를 확인해보니 유일하게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뻘 정말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학년 2학기가 되어 최종 내신 성적이 산출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시지원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부족하여 선생님께서는 세종대학교 지원을 포기하라고 저를 극구 말리셨지만, 관측천문학자라는 확고한 목표와 원하는 학과가 있었기에 저는 수시지원에서 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창의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를 포함한 천문학과가 개설된 5개의 학교에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치기 전 2개의 학교에서 1차합격자 발표를 확인해보니 모두 떨어졌었고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수능까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 다음날 나머지 학교의 1차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는데 모두 떨어져 좌절을 하고 있을 시기에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를 확인해보니 유일하게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뻘 정말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후 3년간 이루었던 각종 결과들을 정리하며 면접을 준비하였고 면접 하루 전 저는 서울로 올라와 면접을 기다렸습니다. 면접당일 대기하고 있을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3번째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두 분 중 한분이 바로 그 S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알아보았었지만 당시 저는 면접규칙상 저의 이름도 공개 할 수 없었고 오로지 가번호만 존재해 교수님은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면접장에 들어와 인사를 드리고 의자에 앉는 순간! S교수님께서“측광이 무엇인가요?”하고 바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여유롭게 차근차근 대답을 하였고, 첫 번째 질문은 무난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활동들에 대해 연구동기, 느낀점 등에 대해선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연구 과정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 누군가가 의문점을 밝힌다면 연구자는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알려주려는 본능이 적어도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있기에 저는 점점 흥분하고 목소리도 올라갔으며 손짓까지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흥분해 자신감이 넘쳐흘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교수님들께서는 저를 우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흐뭇해 하셔서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기분도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다시 저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2 1학기 초부터 오로지 한 교수님과 세종대학교를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로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었고 서류평가에서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최종합격자 선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의 미련과 후회도 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했다고,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 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최종합격자 선발 당일 발표 시간이 되자 저는 최종합격자선발을 조회하니 후보1번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후보1번이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마음 놓고 있어 라고 말씀 하셨지만 모집인원이 9명이었고 천문학에 정말 목표가 있으며 그만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로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 1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조회하니 파란색의 '합격'이란 글자와 함께 제 인생 중 가장 아름다웠던 도전의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던 학과여서 너무나 뿌듯했고 S교수님과 세종대학교라는 명예에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동안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부모님의 설득, 아름다운 추억 등 모두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이 정말 힘들었고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배울 수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고등학생들에게 저는 최대한 빨리 진학목표와 진로를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던 학과에 진학을 실패를 하더라도 그 도전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가치 있으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한번쯤 꼭 한번쯤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도전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도,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

자유전공학부 어호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 세종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유전공학부 16학번 어호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입시 전형 중 논술우수자 전형을 통해 세종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 입시를 경험하며 느낀 점, 수험생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입학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단계는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세종대학교 입학 위해서는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수시/정시로 나뉘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우수자, 실기우수자/특기자전형이 있습니다. 수험생 개인마다 내신, 모의고사 등급, 대외활동, 교내활동, 실기활동 등 다양하게 자신이 여태까지 준비해온 분야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전형 추천을 받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종대 입학을 위한 나만의 수험 전략 - 논술우수자 전형

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내신이었고, 정시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국어, 탐구의 모의고사 성적은 좋았지만 수학, 영어의 모의고사 성적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학기 초에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논술 전형 추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추천을 받고 ‘평소 글짓기 실력이 부족한 내가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추천 이후 학교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논술 수업을 받으면서 논술 전형이 단지 글짓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논술 유형에 대해 배우고 각 학교별 논술 문제를 풀어가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들, 특히 수험생 분들은 논술에 대해 관심이 크게 높아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내신이 조금 낮다는 이유로, 논술에 도전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은 내신+논술+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논술 전형에 가장 큰 변수이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 수, 영, 탐(2) 중 2개 과목 합 5등급 이내입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 그 동안 봤던 모의고사와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자신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여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자신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수험생활 동안 치렀던 모의고사를 토대로 세종대 논술우수자 전형에 수능 최저 준비를 하며 논술 전형을 나만의 수험 전략으로 만들고 세종대 논술 고사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논술은 수시 전형 중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논술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의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경쟁률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꾸준히, 열심히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 논술 공부법

논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논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시문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일 처음으로 제시문을 시간 내에 제대로 이해하며 정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 드립니다. 논술문을 쓸 때 제시된 문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둥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논술고사에 나오는 제시문의 방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학교의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제시문을 읽는 연습을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개념에 대해 찾아보면서 논술을 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각 대학교 별 논술 문제 유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비교, 요약, 자료해석, 대안제시 등의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논술을 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글을 시작하기 전에는 개요를 짜고 시작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요 짜기 없이 써지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글은 글쓴이인 제가 보기에다 형편없는 글 이었습니다. 지금 수험생 분들은 개요 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모르실수 있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의 개요를 짜고 작성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가 금방 보입니다. 논지가 요구하는 대로 서론, 본론, 결론의 큰 틀을 만들고 세세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종대 논술고사의 모의논술, 수시모집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논술고사 카테고리에 논술 기출문제, 해설영상, 예시답안 등이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를 실전 논술고사처럼 시간과 양식에 맞춰 써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제한시간 안에 제시문 이해와 논술 분량을 다 채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설영상을 보며 출제의도의 방향, 자신이 적은 답안과 예시답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문제를 분석해 봐야합니다.

다만, 논술 전형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는 것이다 보니 예시답안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논지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필력 한다면 예시답안과는 다른 방향이라도 합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정된 관념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껏 나온 기출문제들을 풀고 논술 고사를 보기 모의 논술을 통해 올해의 출제 방향, 분량 등을 참고한다면 실전 논술고사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를 통해 논술 공부를 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술학원 사교육비 또한 부담이 되는 수험생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입학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영상, 예시답안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논술고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쓴 답안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나 첨삭을 받고 싶다면 학교 국어선생님께 한 번 읽어봐 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논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ebs에 있는 논술 강의를 추천 드립니다. ebs는 수능과목 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 대한 인터넷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논술 공부를 하신다면 더 폭넓게 논술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신다면 세종대 논술고사의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타 학교의 논술 기출문제를 푸는 것 또한 실전 논술고사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능과 논술을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벅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두 가지 모두 균형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면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논술 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논술에만 올인 하다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논술과 수능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준비하는 자세와 수능이 끝나고 짧은 시간동안에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모아놓는 것 또한 추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논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기본이 되는 원고지 사용법이나 기본적인 형식은 꼭 지켜 답안지를 쓰신다면 세종대학교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논술전형을 ‘운’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논술전형이야 말로 자신이 노력한 실력만큼의 보상을 얻어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글짓기 실력도 부족하였지만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논술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여 합격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논술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꾸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과목별 학습방법

**국어** 과목의 경우 수능 날의 컨디션, 시험 난이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과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 파트 영역에서 수험생 분들이 어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수능 국어영역을 보는 시간인 아침 8~10시인 1교시에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꾸준히 아침마다 문제의 개수를 정하여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파트를 모두 한문제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체크해보며 자신이 문법 파트가 더욱 약하다면 문법 문제를 더 풀고, 독서 파트가 약하다면 독서 파트를 더 푸는 식으로 공부하신다면 효과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의 경우, 국어의 ebs연계 체감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문법과 문학 파트는 체감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ebs연계교재를 꼼꼼히 분석하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분석은 단지 책에 수록되어있는 작품 부분만 공부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국어의 경우도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스타일, 방향을 충분히 연습하고, 중요한 작품을 중복되어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기출 문제를 여러 번 공부하고 분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수학**은 많은 문과생들이 포기하는 과목이어서 ‘수포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수학 성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수학을 포기하며 ‘수포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리고 싶습니다. 많은 문과 수험생 분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만큼, 포기만 안하고 수학을 공부한다면 어느 일정 등급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보다 출발선을 더 높은 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진 다음 신유형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면 고득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들도 오답노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 수학 오답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틀린 문제를 바로 풀이 책을 보고 풀어서 맞추기 보다는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풀이 집을 보지 말고 혼자 힘으로 끝까지 풀어봐야 합니다. 만약, 바로 그 문제의 풀이과정을 통해 답을 맞힌다면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고,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고 해도 풀이과정이 기억나지 않아 또 같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답문제는 오답공책을 통해 모아놓고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자신만의 힘으로 문제를 푼다면 그 유형의 수학 문제는 기억에도 오래남고, 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력, 인내심도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듣기와 독해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 듣기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듣기는 만점에 수렴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영어 듣기 공부를 하기 좋은 시간대는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남은 휴식시간 동안입니다. 수능에서 영어영역을 보는 시간대도 점심 식사 후입니다. 점심 식사 후 포만감으로 인해 5교시에는 조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수능 날 긴장감으로 인해 잠이 오긴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능장에서 영어 듣기 시간에 조는 몇몇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점심시간에 영어듣기를 하는 연습을 통해 수능 당일 날 부담감은 줄이고 자연스럽게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듣기의 경우에도 ebs교재의 연계 체감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활 동안은 사실 문제집보다는 ebs교재의 영어듣기 부분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어 독해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의 스타일과 문제 유형을 알아두며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해의 경우는 시간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여유롭다면 다 읽고 문제를 맞힐 수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바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유형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마다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평소 제가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 시간이 부족하여 장문독해를 못 푸는 경우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개인마다 어려워하는 유형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문제 푸는 방법, 순서를 정하는 것도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제일 먼저 단어를 외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어 독해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르고 문법적 지식이 많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정확한 독해는 불가능합니다. 수능에서는 대부분 수능 기출단어+ ebs연계교재의 단어들 정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의 단어 공부량을 정해 밀리지 않고 꾸준히 단어를 외우시면 독해 실력이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습니다.

**탐구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문과이다 보니 사회탐구 과목으로 시험을 봤지만, 과학탐구 과목에도 적용되는 학습방법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보고자 하는 탐구 과목에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신 후에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탐구에서는 1등급을 가려낼 수 있는 소위 ‘킬링문제’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각 연도별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공책을 만들어 정리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제가 가장 추천 드리는 공부 방법은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중에 아무리 많은 문제집과 개념서가 있더라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원과 헛갈리는 개념, 자주 틀리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이 정리해준 것을 보는 것보다 혼자 스스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정리하고 공부한다면 효율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장에서 많은 분량의 문제집/개념서를 훑는 것보다 내가 약점인 부분만 담은 단권화 노트를 보는 것이 적은 시간 안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나만의 학습방법

저는 고2 겨울 방학 때부터 스터디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각 분기별로 공부할 문제집을 정한 이후 한 달 단위로 문제집 한권 끝내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하루 공부가 끝나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할 공부 계획을 적어 놓고 다음 날 스터디 플래너에 적힌 계획을 우선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스터디 플래너를 적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공부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주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스태워치를 통해 하루 순수 자습시간을 측정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시간만 채우는 형식의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측정하며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이 하루 중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등의 시간을 빼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스태워치로 시간을 재며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는 생각 보다 순수 자습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도 커지고 적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수 자습시간도 스터디 플래너에 매일 기록하고, 하루 공부의 양도 기록하는 것이 공부에 지쳤을 때, 스터디 플래너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공부 의욕과 의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밤늦게 새벽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밤늦게 까지 공부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의 수면은 보장이 되어야 다음 날 공부를 하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아침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수능패턴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능은 아침 8시 40분에 시작하지만, 우리가 1교시 국어영역을 풀 때는 머리가 맑은 정신이힘보기 위해서는 3시간 이전에는 일어나야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침 7시에는 일어나서 국어영역을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능 실전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수능에서는 ‘원서영역’이 있다는 말을 할 만큼 어떤 전형, 어느 학교의 원서를 접수하는가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 듯이 틈틈이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그 학교의 과목별 반영비율, 작년 입시 결과 등과 입시에 대한 정보, 뉴스 등을 찾아보는 것을 시간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도 식힐 겸 인터넷으로 스스로 검색해보며 찾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리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입시를 상담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지만, 자신의 성적과 진로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의 특징, 희망하는 과에 대한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찾아보며 원서를 접수할 때 참고하며 입시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 슬럼프 극복

저의 수험 생활 중에 슬럼프를 말씀드리자면 두 번의 슬럼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슬럼프기간은 4월쯤에 찾아왔습니다. 수험생이 되었다는 부담감에 전 1,2,3월은 공부의 양에 집착하며 잠도 줄여가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먹는 것을 제 시간에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먹으며 공부를 하다 보니 4월 중순 쯤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학교에서 쓰러져 119를 타고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다보니 공부는 아예 못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공부의 흐름을 놓치다 보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처럼 건강을 놓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오히려 나중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의 두 번째 수험생활 슬럼프는 9월~10월 정도에 수능이 가까워 졌을 무렵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도 수시상담을 하느냐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학교 분위기는 더 공부를 하는 분위기라고 하기 보다는 다들 수시 지원 이야기를 하고 나태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자습을 하는 것도 힘들고 제 자신도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수험생 시기에는 누구나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슬럼프다가를 반복하고 많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런 감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없애고자 공부를 쉬면 오히려 그날 밤 공부를 안했다는 죄책감에 더 우울해지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수험생활 중 찾아오는 ‘내가 수능 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긴장감은 공부를 안 한 내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들 때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며 수능 공부와 입시를 준비한다면 불안함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공부가 잘 안될 때는 입학하고 싶은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진도 구경하고, 입학 수기들을 찾아보며 다시 공부의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 내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작성도 해보니 꼭 대학에 합격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생기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고 상상하시다보면 작은 슬럼프들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지금 제가 목표로 했던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여 행복한 새내기 생활을 하며 이렇게 수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제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 하지도, 과소평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수험생활 겪으며 주변을 지켜봐온 결과 너무 6월,9월 모의고사 등을 통해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어 막판에는 수능준비를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봤을지라도, 수능 날의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많은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수능 날 실수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은 수험생 본인의 감정만 소비될 뿐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적 생각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믿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문구를 수험생활 내내 가슴속에 새기며 지내왔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해 수능 때까지, 수능이 끝나서라도 논술고사를 준비할 때 까지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험생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아하는 분야에 한번 미쳐봅시다!

###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한서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 창의인재(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여 즐겁게 캠퍼스 생활 중인 전자정보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16학번 한서현입니다. 미래부가 선정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예술이 잘 발전되어 있는 대학, 계속 발전 중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대학인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모바일 IT기기 제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이는 IT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T에 대한 관심은 게임으로 이어졌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액션퍼즐패밀리3’의 게임커뮤니티 게시판지를 맡은 경험을 계기로 게임 개발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게임 개발사의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고, 게임 개발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부분에선 이런 점이 아쉽고 저런 점이 아쉽네...나도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게임 개발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게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타이니팜’ 등의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지 활동과 네이버 ‘컴투스 공식 카페’에서 지금까지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포스팅하고, 게임 시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게임 업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있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팀원들과 호흡하며 게임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모바일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과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다 인천에서 보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전국 각지의 사람과 인연을 맺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예술이 발달되어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캐릭터 디자인 및 그래픽에도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융합 콘텐츠인 게임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예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원하는 것들이 일치하고 통학 요건도 용이한 세종대학교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래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공학과와 관련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제가 원하는 모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고학년이 되면 꼭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같은 컴퓨터 관련 학과로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변함없이 게임 업계에 뜻이 있어서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교생활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 과목을 좋아해서 이과에 진학하였고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 과학 공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인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수학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맞으면서 이해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 뿌듯했고, 이 좋은 기분은 제가 수학 공부를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1,2학년 때 활동한 학습동아리 '고수'는 수학의 흥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수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선정하여 풀이 과정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삼각함수 구하는 방법 등의 수학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적응력을 키웠고, 이 과정을 통해 심화 문제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수학 성적은 나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물리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물리 과목은 게임에서 현실의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재밌었고 물리를 배우면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학습 내용의 기억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본, 심화학습과 실험활동을 통해 물리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결과도 자연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게임기획자는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연구 동아리 '애플파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장으로서 매주 두 시간인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지를 제작 하면서 책임감을 배웠고, 최신 IT업계 동향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개발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IT업계에 대한 꿈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 있었던 활동은 <SNS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SNS들의 성공요인과 특징에 대해 토론해 본 것입니다. SNS가 없었던 과거의 생활 모습을 되돌아보았고, 미래의 SNS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카메라, 음악재생 등의 분야별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을 뽑는 활동을 통해 똑같은 기능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최신게임을 하고 그래픽, 밸런스, 조작성 등을 평가하면서 개발자의 기획의도를 생각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종합 콘텐츠인 게임을 만들고 싶고 좋아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취미이며, 일주일에 한번 있는 미술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런 관심과 열정은 교내 미술대회까지 이어졌고 매년 참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포스터와 만화 등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공을 들이면서 집중력을 키우게 되었고, 끈기와 근성을 요하는 세심한 작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술적 능력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프로그래밍능력과 합쳐진다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모바일게임을 만들 때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내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세종대에서, 봄을 맞이하다.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박홍연

2014년, 그 해 겨울은 내게 유독 혹독했다. 마침내 끝이 난 길고 긴 레이스의 도착점에서 내가 느낄 수 있던 감정이란 오직 좌절과 실망뿐이었다. ‘드디어 끝났다’는 기쁨과 환희에 둘러싸인 친구들을 보며,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왔다 자부했던 나는 그저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 어째서 나 혼자만 실패를 겪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던 매일 매일이 내게는 차가운 겨울이었다.

게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자 교내 주제별 연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3학년 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으로 흥행할 게임은 무엇일까-장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과거 피쳐폰 시장의 선례들을 알아보고, 2012년부터의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흥행게임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추후 흥행할 게임은 어떤 장르가 될 것인지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장르별 역사에 대해 쓴 책을 읽어보고, 과거 게임들의 평가를 쓰고, 2012년부터의 마켓 매출순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게임의 장기집권이 지속 되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시장에는 거대 자본이 필요한 마케팅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주신 게임 프로그래머께서는 장르의 다양화보다는 스마트폰 성능의 발달로 인해 대규모 RPG장르의 고착화가 지금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흥행하지 않은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을 만들면 세대별,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유저들의 장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래희망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변함없었기 때문에 저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직접 찾아서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저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것이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몰입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미쳐본다면 자연스럽게 밝은 미래가 펼쳐 질 것 이라고 기대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던 생활이 이어지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그때에도 나는 하릴없이 인터넷만 붙들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한 블로거가 적은 글이 눈에 띄었다. ‘목표 없는 도전은 실패를 향한 도전과 같다.’ 순간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난날 나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험생활 동안의 나는 그 어떤 뚜렷한 목표나 꿈 없이 그저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했다. 남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 주변 친구들이 모두 하나까. 나에게 학습동기라고 할 만한 것은 그게 다였다. 목적지가 없는 레이스는 방향을 잃기 마련이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다는 슬럼프와 매너리즘에서 스스로를 끌어올려 낼만한 원동력이 없으니, 나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힘든 순간을 즐겁게 이겨낼 힘을 주는 꿈이 없다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앞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로 삼을 꿈을 찾는 일이었다. 막연히 ‘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단순히 직업을 찾으려니 도저히 방향이 잡히질 않아, 나는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에도 관심이 많아, 한 때는 막연히 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이런 나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직업유형검사를 바탕으로 찾아낸 꿈이 바로 호텔리어였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직업. 내게 호텔리어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단연 국내 최고라 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나의 목표 대학이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015년 봄, 그렇게 나는 새로운 꿈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전을 시작했다.

정시 입학을 목표로 했던 나는 전 과목에 신중을 기울여야했다.

보통 수험생들은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의 공부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답을 잘 맞히는 과목은 공부를 하다보면 절로 신이 나 계속해서 시간을 쏟게 되는 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나오질 않는 과목은 점점 쳐다보기도 싫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는 국어가 전자에 수학이 후자에 속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수학 학습시간에 어떻게 해야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나는 단순한 원리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냈다. 답을 맞히지 못해 흥미가 떨어졌다면, 답을 맞힘으로써 잃어버린 흥미를 되찾으면 된다. 나는 즉시 가장 쉽다고 알려진 문제집을 사 그 자리에서 반 정도를 풀었다. 난이도가 쉽다보니 수식이며 계산법이 술술 풀렸고, 채점을 해도 대부분 답을 맞힐 수 있었다. 이렇게 쉬운 문제집 여러 권을 풀으로써 우선 수학에 대한 재미를 붙인 나는 계속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며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단계별로 비슷한 문제들을 접하다보니 문제의 기본 원리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심화 문제를 풀 때에도 오히려 더 쉬운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몇 번 맞히고 나자 생겨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수학과 달리 오래전부터 가장 흥미 있고 성적이 잘 나왔던 과목인 국어는 항상 공부가 즐거웠다. 다른 친구들은 국어 영역에서 항상 시간부족 문제를 고민으로 이야기 하는데, 나는 오히려 남은 시간으로 두세 번 더 검토를 하곤 했다. 국어영역에서의 시간문제는 단순히 읽는 속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긴 지문들이 나오는 비문학과 문학 부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작문과 국어문법 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필수적인 문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문학 단편선이나 시집을 읽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되어서야 문학 지문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작품이 나오면 부족한 시간과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당황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진다. 그러나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문학 작품들을 접해두면 시험에 자신이 읽었던 작품이 나올 때도 있고, 실령 모르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쉽게 새로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나 또한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시험에 나와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시나 소설을 읽을 때 공부라 여기지 않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내게 영어와 제2외국어는 시험을 위한 과목이라기보다는 꿈을 위한 일종의 투자로 느껴졌는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호텔리어에게 외국어 능력은 가장 기본임과 동시에 또 중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영어는 수험기간만 잠깐 하고 그만 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공부하려 노력했다. 듣기 영역은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음악 대신 영어 음원파일을 꾸준히 듣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이를 습관으로 만들고 나니 나중에는 다음 대화를 미리 중얼거릴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할 수 있었다. 독해 영역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했는데, 어떤 낯선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집을 풀며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다. 특정 지문만을 골라 반복해서 외울 경우 생소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쉽게 버벅대기 마련이지만 넓은 스펙트럼의 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독해 방법이 생겨나게 된다. 읽기를 좋아하는 나의 경우엔 틈틈이 읽어둔 영어 단편소설, 간단한 과학지문, 철학 지문 덕에 쉽게 맥락을 파악하고 중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었다. 이때 얻게 된 영어에 대한 재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2외국어였던 베트남어 역시 같은 자세로 학습하려 노력했는데, 영어와는 달리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주로 여러 회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반복해서 읽었다. 또 문화 파트를 대비하기 위해 이따금 인터넷에서 베트남의 역사나 관광지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꼭 베트남 나짱에 소재한 리조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 하나를 더 가지게 된 것은 다 이 덕이었다. 새로운 수험생활 기간에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마음가짐이었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저 의무감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전과 달리 나만의 꿈을 찾고 난 다음은 모든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호텔경영학과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피곤했던 눈이 번쩍 뜨여질 정도였다. 가끔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면 나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곤 했다. 사이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배우는 학과 커리큘럼 하나마저도 나에게서는 가슴 뛰는 동기였고, 다시금 펜을 잡게 만들었던 원동력 이었다. 많은 교수님들과 실습실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인턴십에 참여하는 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상상해보는 내 미래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에 당당히 합격의 함으로써 나는 기나긴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때로는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는까,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가를 고민했지만 이는 나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는다. 중요한 것은 그를 극복할만한 동기가 있는가이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힘든 역경도 즐겁게 견뎌낼 수 있는 꿈. 내게는 호텔리어가 그랬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라는 시작점에 서있는 지금, 드디어 나의 봄이 시작되었다.

함께  
이루는  
꿈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수기  
당선작 모음집

우수상



## 세종대학교의 ‘창의’, ‘능동적 자세’와 ‘합격’을 안겨준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건미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창의인재전형으로 입학하여 사회로의 새 발걸음을 내딛게 된 16학번 박건미입니다.

우선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전형은 자신이 지원전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성적 외의 여러 활동들로 세종대학교에 적합한 학생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적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열정을 담은 자신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저의 경험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완전히 낯선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 교내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도 영 좋은 편은 아니었고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1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진로를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1학기 때 저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 해보려고 부모님과 끊임없이 상담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분화된 현대직업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진로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당시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고자 각 대학교들과 학과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중에 세종대학교의 ‘창의’라는 이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창의력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접해왔기 때문에, 그 이념을 보는 순간 진정한 ‘창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검색엔진을 통해 ‘창의’라는 단어를 사전지식을 통해 접하는 것에만 그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제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창의’라는 이념에 완벽히 매료되었기 때문에 다이아리를 구매하여 생활 속 자그마한 아이디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해야 할 일들, 한 일들을 적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리를 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하루를 반성할 수 있게 되었고 어제의 나를 보며 ‘오늘은 더욱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야지’라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심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고 제게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공감·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할 직업은 ‘CEO’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막연히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제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분야와 엮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예술품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능한 예술인들은 오로지 창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감 넘치는 기회들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어리 메모로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자아성찰은 ‘한류문화산업 CEO’라는 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다이어리 기록 습관은 또한 평소에 학습태도에서의 능동적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경영’이라는 학문에 크게 관심이 가게 되었고 ‘창의’라는 이념을 더 파헤쳐보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를 맞이하며 그동안 불안함을 야기했던 고민인 ‘대입 진로 설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에는 진로도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대학교의 창의이념을 실천하는 경영학도’라는 목표가 생긴 뒤로 아는 것이 많아져야 아이디어도 솟구친다는 생각이 들며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대답을 열심히 하기 위해 예습 복습을 했고 졸면 항상 뒤로 나가서 잠을 깨며 수업시간에 온 집중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학습 태도는 후에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인상적인 학생으로 꼽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의 영어 공부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입이 트이는 영어 Club’ 동아리 활동에서 EBS강의를 통해 그동안 흥미 있었던 영어회화의 기본을 다졌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쓰이는 표현 등을 익히고 응용하여 영작한 후, 스스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화에 대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2학년 때에는 영어과 담임선생님과 수시로 영어로 소통하면서 작문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모의UN 자율동아리인 ‘OKMUN’에 가입하여 토론에서 쓰이는 공식적인 영어 표현들과 자주 혼동하는 단어들을 공책에 예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때 69점이었던 영어 내신성적도 3학년 때 91점으로 향상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개선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자아 성장과 실력 향상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저는 영어공부가 힘들 때 리더십과 긍정적인 자세를 주제로 한 TED 강연을 시청하며 힘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실용적인 영어 표현이 나오면 화면을 멈추고 계속 따라 읽으면서 표현을 익혔습니다. 자막을 안보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영어에 대한 흥미는 나날이 많아졌고 제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음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3학년까지 전체 성적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우선순위는 ‘정말 경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경영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왜 고등학교 대부분의 경제·경영 동아리들은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지식에만 집착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경영 지식을 실생활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그릇을 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론을 경험으로 배우는 동아리 ‘오메가’를 창설했습니다. ‘오메가’에서 광고 퀴즈, 모의 경영, 경영 윤리 토론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케팅·경영 전략을 짜는 방법, 경영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광고 퀴즈’였는데, 광고 시청 후 부원들과 함께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모의 마케팅 전략을 짜면서 광고 속에 숨은 마케팅 이론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저는, 활동에 필요한 경제경영 지식의 두 배를 숙지해야 했지만, 주변에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부원들의 어려움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고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시간 일주일 전부터 하나의 경영 지식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례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례와 관련된 더 많은 지식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쉽게 설명하는 등 부원들의 원활한 이해를 도우며 미래의 경영학도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심화된 경영지식과 ‘오메가’에서 배운 것을 융합하여 습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창업 교내대회에서 ‘개인 맞춤 코디네이터’라는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에 입상하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창조창업 MBA’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MBA는 ‘경영이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창업’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세종대학교의 ‘창의’라는 이념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메가 활동에서 쌓은 경험 덕에 심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어려운 개념에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응원과 부모님의 조언 덕분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전환하여 ‘배경지식 덕분에 오히려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저는 강의가 끝나면 매번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함을 채웠고 이를 토대로 ‘편의점 찰떡궁합 어플’에 대한 모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침내 MBA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날, 교수님들께서 저의 적절한 아이템과 꼼꼼하게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MBA를 통해 그동안 배운 지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좋아하는 분야로 창업’강의는 미래의 창업분야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CEO들이 자주 언급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능력이 아닌, 기초적인 상황에서부터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 개발하는 능력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 ‘창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와 같이 뒤늦게 활동한 저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으로는 활동의 양보다 그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세종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능동적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곧 세종대학교의 ‘창의’이념입니다. 세종대학교 합격을 희망하시는 학우 분들, 참된 주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만의 ‘창의’를 명확히 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그 창의라는 이념을 내면화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큰 아이디어를 뽑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미래 발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대 1을 뚫어라!!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현승

### 1. 본인만의 확고하고 진실 된 꿈을 찾아라!

세종대학교의 학생부종합 전형인 ‘창의인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와 면접고사를 통해 학생의 창의성, 인성,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 말인즉슨 상당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은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성과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창의인재’ 전형은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입시제도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창의인재’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확고하고 진실 된 꿈’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꿈은 단순히 일정한 직업이나 시험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지향하는 목표,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넣는 것과 같은 하나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희망진로 란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경영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적혀있습니다. 단순히 1학년 때에는 문과는 취업하기 힘들니깐 그나마 취업하기 쉬운 경영학과에 진학하자는 1차원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간의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되어 중소기업이 튼실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여 대한민국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설 것이며 다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저만의 확고하고 진실한 꿈을 찾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고하고 진실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어떠한가, 본인은 어떤 것을 가장 잘하는가’와 같이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교육받으신 어른들은 ‘고등학생은 공부나 해야지 이런저런 활동은 대학교에서나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만 고등학생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모두 참여하며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만들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활동하는 거 역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고등학생이 해야 하는 교과 활동인 ‘학업’에 지장 가지 않을 선에서 다른 친구들이 게임을 할 시간에, 노래방에 가고 놀 시간에 관심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토론하고 신문을 제작하며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찾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그것이 본인만의 특색 있고 확고하며 진실성 있는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관련된 책을 모두 찾아 아침시간, 점심시간, 석식시간 등을 쪼개서 읽으며, 동아리 시간에 본인의 꿈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멘토 분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본인의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낙담 혹은 ‘창의인재’전형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중간에 본인이 꿈이 바뀐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꿈이 바뀌게 된 터닝포인트를 조리 있게 설명한다면 그 터닝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가산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실성입니다. 입학사정관분들과 교수님들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타인의 도움과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스토리는 반드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들통이 나곤 합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나의 진실성과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

교수님들과 전문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 서류만으로는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관계상 학생의 모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합숙면접을 통해 학생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교과 즉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학생의 3년간의 교과활동을 통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내활동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수학, 영어, 사회문화, 경제 과목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성적의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경영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입학사정관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더라도 오르게 된 나만의 공부비법이 있다면 이를 어필하여 여러분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교과와 비교과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교과가 우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에 관심이 있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더라도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와 노력이 엇보이지 않는다면 이 역시 진정성이 떨어지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내신공부 위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주요과목에만 투자를 한 나머지 과학탐구(문과일 경우), 사회탐구(이과일 경우), 기술가정 그리고 제2외국어와 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됩니다! 주요과목과의 편차를 통해 학생의 성실성 등을 입학사정관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제과목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에게 생소한 과목입니다. 용어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등학교 수업 시스템으로는 배우기에 버거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수원시에 제안하여 후원받은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경제"를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을 살려 무조건 암기나 일방적인 수업방식이 아닌 개념 위주로 지도를 그리듯 이미지화하여 정리하고 실생활에 적용한 예를 들며 설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할애해가며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야 했고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장균형의 변동을 공부할 때는 수요공급곡선의 그래프를 친구들과 함께 그려가며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린트 자료와 경제현상과 개념을 실생활에 하나씩 대입한 것을 정리한 예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저는 교과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 분석력이나 경제개념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훨씬 더 꼼꼼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과 활동인 경제 과목의 내신 준비법을 저만의 공부법으로 저의 개인적인 성취와 친구들의 성적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하며 첫 시작인 1번 문항에 이것을 녹였고 그 어떠한 비교과 활동보다 강력한 저만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 3.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터! 차근차근

저는 자기소개서를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였지만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모두 형광펜으로 체크하였고 이는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손질하듯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준비가 끝났으면 각 문항을 스스로 해석했고 문항의 의도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키워드별로 개요를 튼튼하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글을 쓸 때 개요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에 개요 작성에만 2~3개월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자기소개서의 첫 시작부분은 흥미롭게 작성하자!’입니다. 입학사정관분들께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소개서를 읽으십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글의 처음과 마무리가 흥미롭고 눈에 띄어야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글의 시작 부분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입학사정관님들의 눈에 띄 만한 ‘키워드’나 ‘격언’ 혹은 질문 형식의 시작을 통해 글의 흡입력을 늘린 것이 저만의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되 스펙 나열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자!’입니다. 1000자~1500자는 적으면 적다고도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양입니다. 핵심은 글이 술술 읽히게 스토리가 있으며 스펙 나열식이 아니여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글자 수에 관계없이 편하게 친구들에게 카톡?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말로 비격식체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글이 쉽게 읽히도록 흐름을 만들었고 이를 격식체로 바꿔 2번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나 구를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삭제하여 핵심은 쪽쪽 들어가 있으며 글의 흐름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글은 숙성시키고 계속해서 다시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글을 썼다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한 번 더 읽어보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보통 하루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자기소개서는 새벽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감성이 충만해지는 새벽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장이나 표현 자체가 상당히 러프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많기에 최소 4~5번을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제련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내려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읽고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 팁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첨삭을 받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으면 본인의 고유의 것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에게 우선 첨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취합하여 저만의 자기소개서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적들을 수용하여 최종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저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마무리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과 내신공부입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주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잠재성과 진실성을 최대한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 마지막으로 대학입시를 앞에 둔 예비후배님들에게 한마디!

저는 현역으로서의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유학을 결심한 재수생 아닌 재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능을 보지는 않았지만 수시에만 지원했습니다. 저의 3학년 총 내신은 2.3정도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기에는 부족하면서도 경제, 사회문화 등 경영학과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1등급인 애매모호한 학생부종합전형 내신이었습니다. 제작년의 경우 저의 눈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시지원을 하였고 6개 모두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2015년 수능에서도 평소보다 표준점수가 약 40점 가량 떨어지며 대 실패를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진 거와 같이 힘들었으며 소속 없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 년 동안 남들과 달리 수능특강대신 독일어책을 펴고 유학준비를 하는 동시에 짧게나마 직장생활도 해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대학입시를 앞둔 후배님들에게는 대학입시가 지금 당장의 전부이며 너무나 커 보이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공부하고자 하는 학과에 딱 붙는다는 것 역시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아쉬움이 있다면 재수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고 또한 저처럼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이고 어떤 것을 제일 잘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도 경험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술관을 가고 연극과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며 마음 역시 풍요로워졌으며 성숙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일 년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바꿔줄 일 년 이자 터닝포인트였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앞에 둔 후배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중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좋은 자산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 현실적인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세요. 파이팅! 내년에 세종대의 맛있는 학식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고 계획하고 목표하자.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을 세종대에서 시작하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윤성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의 속 뜻으로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일단 시작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전 이 말의 뜻을 ‘시작이 가장 어렵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의 뜻처럼, 저는 성공을 위한 제 인생의 첫 ‘시작’인 ‘세종대학교 입학’을 하기 전 까지 참 멀고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2011년, 교육 1번지라는 강남 못지 않게 학구열이 높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목동에 입성한지 2년만에 고등학교라는 두려움과 호기심의 장소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사는 아이들이라면 으레 이맘때쯤 늘어나는 학원 스케줄의 개수, 문제집의 양과 자습시간에 힘들어 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전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계바늘 뒤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바쁘게 행동할 때, 혼자 떨어져 생각하고 교육과정 이외의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기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에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2학년 때에는 제 앞에 놓인 다양한 진로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수없이 많은 독특한 재료들의 향을 맡고 맛을 보며 재료와 요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남들은 고등학생 때 경험해 보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로 하여금 제 미래를 담금질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달리다꿈 선교회에서 진행했던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2박3일 캠프에 봉사자로 참가 한 적도 있었고, 남들은 부모님들에게 맡겨버리기도 하는 고등학교 봉사활동 역시 시흥시와 고양시의 치매노인 요양 센터에서 일손을 도우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탑기어’, ‘PC 사랑’, ‘Stuff’, ‘과학동아’, ‘Newton’과 같은 다양한 월간 잡지들을 구독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자동차, IT,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들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겐 큰 즐거움이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익히기 위해 직접 C언어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었고 자바, C++ 등을 공부해 본 후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스마트폰 OS를 직접 개조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구글 레퍼런스 포럼’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간단한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 사용방법과 루팅, 부트로더 언락, 커스터마이징과 오버클럭, 다운클럭 등에 관한 강좌를 2개월 동안 연재하기도 했었고 방학 때에는 더 좋은 작업 환경을 갖추기 위해 ‘용산 선인상가’에서 PC조립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모아 직접 노트북을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부산 BEXCO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벤츠 SLS AMG’를 보고 깊게 감명받아 한때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지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제가 정말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뒤늦게 미술과 디자인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Artpool’이라고 불렸던 학교 미술 동아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볼펜 드로잉으로 경복궁을 그려보기도 했었고, 스티로폼과 찰흙을 활용해 ‘BMW MINI 쿠퍼’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내 손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보는 작업은 그 어떤 경험들보다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교임에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미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대에 가기엔 실기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집안도 넉넉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취업문제에서 문과보다 자유로운 이과에 부모님 권유로 진학 했었기 때문에 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던 미술 선생님과 의 상담과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일하시고 계셨던 삼촌께서 해주신 조언으로 미술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이과적인 능력도 함께 겸비해야 하는 건축학과로 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꿈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9월, 늦게나마 급하게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채로 영어와 국어, 과학 탐구에 집중 하고 매일 미친 듯이 국어 모의고사와 영단어 외우기, 과탐 내용 암기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지만, 늦게 찾은 꿈과 늦게 잡은 공부는 결국 제게 쓰라린 아픔을 남겨 주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말 그대로 제 고등학교 3년간의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4 7 3 5 3.

예상하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성인이 됐다는 생각에 정말 미친 듯이 놀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몇 시간 동안의 상담 후 결정한 재수를 이듬해 3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일년을 보내게 됩니다. 꿈을 찾았고 목표가 분명했지만 목표가 너무 높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상위 5% 이상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원하셨지만, 너무 멀었던 목표 탓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현실감이 없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약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나 10시까지 공부 준비를 하고 12까지 공부 후 점심, 다시 2시부터 공부 시작, 저녁 10시 공부 종료. 그 어떤 코칭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혼자 공부를 시작하고 실력을 쌓아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들 때에는 끝없이 풀어지며 몇 일씩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의고사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었고 내 실력과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해 수능 결과는 고3 현역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슬펐던, 두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부모님을 볼 수 없어 집 밖으로, 하루 종일 알바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2달간 방황한 끝에 알바를 하던 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바라보며, 건축학과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를 얻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1월달부터 정보 수집과 1년 계획 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없인 그 어떤 성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과 재작년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내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어 더 낫은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조차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 체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며 공부해 완전히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대로 된 공부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년 계획의 중심으로 EBS의 고3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그때 그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추가로 구입해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수학의 정석’ 같은 기본서를 한 권에 3~4주동안 완전히 정리한 후 5월달부터 EBS 책들을 풀기 시작했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 별도의 문제집 없이 EBS 문제를 반복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나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없이 8월달까지 풀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문법 개념서를 따로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외워 주었고,

**영어**의 경우 문제의 지문에서 문법 구조가 이해 가지 않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문법책과 함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문장에 사용된 문법요소들을 노트에 정리해 가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따로 영단어장을 구입하지 않고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리해 외웠던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 EBS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개념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7월달부터 모든 EBS교재들의 문제들을 복습하고 인터넷강의를 사용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보충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나감과 동시에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를 매월 반드시 풀어보았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모르거나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쏟음으로써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놀고 싶거나 페이스 조절이 어려워 질 때에는 오후 9시에 공부를 끝내고 자유시간을 가졌고 2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날로 정해 12시 이후부터 완전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웠던 8월이 가고 9월이 다가왔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후 점수가 오르지 않았던 수학보다 다른 과목들에 더 시간을 쏟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 대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대학들보다 뛰어난 교수진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세종대학교 건축학부에 관심이 생겼고 곧 제 1순위로 세종대학교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탐 영역 고 난이도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았고 꾸준하게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영어 영역의 경우 공부 시간을 줄이되 하루에 3지문씩을 반드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어의 경우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 봄으로서 감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수능 날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채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수시를 치르고 정시 결과를 기다리고 [2 - 4 - 1 - 4 - 2]의 등급표를 받아 전 채로 당당하게,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세종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고도 험했던 성공을 위한 제 첫 ‘**시작**’을 올 3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몇 년을 보내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실패에도 쓰러지지 않고 분명한 목적만 가진다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성공의 시작을 이 세종대학교에서 시작하며 제가 겪은 경험들과 함께 제 무한한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으리란 또 다른 꿈을 가지며 글을 마칩니다.

## 주체적으로 진심을 다하면 합격의 길은 열린다. - Do What You Love!

###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오민정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6학번 오민정입니다.

저는 이번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 하나인 창의인재 전형으로 세종대학교에 최초합격자로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2월 22일 입학식에 참가하며 ‘내가 세종대에 어떻게 올 수 있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든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기에 맺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식을 치른 날.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촬영을 하던 방송부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일에 열중하시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고, 방송부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그렇게 단순히 멋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출이나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방송을 좋아하게 되었고 진정한 삶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송 분야로의 꿈을 은연중 키우던 저는, 2학년 때 학교에서 열린 비전스쿨에 참가했습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방송 분야로의 진로를 확신하게 되었고, 관련 학과와 학교를 찾아보던 중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와 ‘글로벌’을 강조하는 세종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이 대학교라면 나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입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갔습니다.

방송을 좋아한 저는 방송 분야로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우리 사회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단순히 암기만을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과 연관 지어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암기만을 할 때보다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니 사회 공부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를 더 활동적으로 실천해보고자 ‘오얏 NIE’라는 신문스크랩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관련 문제에 따른 제 생각을 토론식으로 발표하며 부족했던 사고력도 기르고 사회 현상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는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 직접 부탁해 찾아가 일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만의 ‘아이디어 수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송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참여했었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수첩 하나를 꺼내고 그 위에 ‘아이디어 수첩’이라고 크게 적어 평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적은 아이디어를 회의 때 제안해서 많은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나무’라는 제목의 UCC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쓰레기에서 짝이 트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CG를 만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만들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고민한 끝에 애니메이션 식의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184장의 그림을 직접 그려 연결하여 완성해 수상도 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저는 ‘내가 진정으로 방송 일을 좋아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84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 덕분에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참신하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즐길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안동 MBC 청소년 리포터로서 취재하고 방송했던 것입니다. 추석, 교내 모의유엔 대회, 한글날 행사 등 다양한 주제로 취재를 했지만, 특히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일을 알리는 뉴스를 기획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월 14일을 단순히 발렌타인데이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꼭 알리고 싶었고 직접 자료조사, 인터뷰, 리포터 작성, 촬영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초콜릿에 묻힌 안중근 의사’라는 제목의 뉴스를 완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직접 제작한 뉴스가 나온다는 것도 기뻐지만, 이 뉴스를 본 학교 친구나 후배들이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을 전해주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리포터 활동은 제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항상 고려하는 힘과 자신의 보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성 사랑 등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는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치매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기에 봉사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기 위해 없는 애교도 부리며 열심히 활동했고, 노력 덕분에 1년만 하기로 했었던 봉사를 자발적으로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부로도 활동을 하고 있던 저는 이별 선물을 고민하던 끝에 특별 영상을 기획해 봉사 동아리 부원들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각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 한분만을 위해 일일이 자막도 넣어가며 제작하였고, 완성된 영상은 작별 인사 끝에 틀어드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엔 저희에게 한 번도 미소를 보여주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요. 딸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나.’하시며 저희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러한 작은 영상 하나만으로도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방송 관련 직을 하며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제작해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인위적인 활동이 아닌, 이렇게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점들을 자기소개서에 거짓 없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썼고, 그렇기에 면접 때에도 그 어떤 확인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Do What You Love!”** 이것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원하는 대학 입학에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들, 특히 이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분명 입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이고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에 바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펙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수동적으로 쌓은 활동은 아무리 많아도 헛수고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미친 듯이 파고들어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향한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내년 2017년, 여러분들을 세종대학교에서 후배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아마도 꽤나 희망적일 합격후기

###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이혜진

일단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합격이란 타이틀을 달고서 이런 수기를 쓰고 있을 거라곤 난 생각지 못했었다. 그것도 논술전형으로 합격하게 될 줄은. 하지만 운 좋게 든, 뭐든 내가 합격해서 이런 후기를 쓰게 된 이상, 난 이 후기를 읽으실 분들이 이 후기를 통해서 한 줌의 위안과 도움이라도 얻어 갔으면 싶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후기하나에 내 모습을 대입하고 비교해보며 내 미래를 상상했고, 후기하나에 좌절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세종대에 어떤 방식으로 합격했는지, 당신도 합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구성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많이 듣어봤지만, 들어본 횟수에 비해서는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탓에,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 그 실수들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 나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나의 출신 모교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매우 권유하는 학교였는데, 따라서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있는 학교였다.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덩달아 나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토론 동아리에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갔다. 동아리에 들어간 후로 나는 공부보다 토론 준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덕분에 내신등급은 간단히 말해서 작살이 났다. 가장 큰 스펙인 내신이 작살난 나에게 입학 사정관 제도는 무리였고, 내게 있어 수시란 논술뿐인 아주 무서운 상황에 나는 직면하게 되었다. 일명 ‘6논술.’ 험난한 정시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나는 반드시 수사에서 붙을 것을 다짐했고, 그 날로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였다. 내신등급은 정말이지 바닥이었지만, 다행히 모의고사 등급은 국어와 사탐이 꽤나 괜찮게 나왔기에 나는 최저 등급에 대한 묘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등급 정도는 분명 맞출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근거 없는 확신을. 나는 내가 논술전형으로 붙을 것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수능 당일 1교시에 산산조각 났다.

국어는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제시문 안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시험지를 제출해야만 했다. 시험지를 제출하자마자 내가 한 생각은 “아, 재수 확정이네.” 이었다. 그해 국어 시험이 요 몇 년간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 처참히 망한 국어 시험 덕에 나는 다음 교시였던, 안 그래도 못하던 수학시험을 더 못 봤고, 다른 과목도 평소 모의고사 보다 못한 점수들을 얻었다. 결국 나는 단 한 개의 최저등급도 맞추지 못하고,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수험생활을 마쳤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나의 첫 번째 수험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은 총 3 가지였다. 참고로 이건 나와 같은 재수생들이나, n 수생들보다는 현재 고등학생들인 친구들에게 더 말해주고 싶은 점들이다.

**1.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나의 첫 번째 비극은 애들 모두가 하나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한 것이었다. 다수의 아이들이 하고 있다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다. 특히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자신이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인지, 이 스펙이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2. 내신을 쟁기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2학년 초반에 형편없는 내신점수를 얻으면 내신을 버리겠다고 한다. 이미 회생불능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사실 나도 그런 학생이었다. 그런 내가 내신 공부에 온 힘을 다한 건 다름 아닌 3학년 2학기였다. 수능이 끝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때, 나는 재수를 결심하고 언제보다도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그건 그 시절 내가 가장 잘한 일중 하나이다. 그때의 노력으로 나의 평균 내신 성적은 훨씬 볼만 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논술전형이나 정시로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다. 의외로 논술이나, 정시에서 내신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대의 경우에도 논술전형에서 내신과 논술 점수의 비율이 똑같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처참한 내신등급에 겁먹고 지원을 포기하지는 마라. 꼭 실질 내신반영률을 확인하라. 실질 내신 반영률을 보는 순간, 희망이 보일 것이다.)

**3. 입시는 결국 수능으로 귀결된다.** 가끔씩 수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는 친구가 있다. 감히 말하건대, 당신이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던 간에 수능 공부는 절대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논술전형의 핵심은 논술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최저등급을 충족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란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무튼 이런 늦은 후회와 깨달음을 안고 나는 재수학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난 그곳에서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또한 논술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일단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건 공부 방법이다.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쉽게 말하기가 힘들다. 개개인마다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문제에 빠지게 된다. 본인이 나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그 방식을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본인이 현재 최상위권의 학생이 아닌 이상, 부디 제발 자신의 공부 방법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공부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부는 일단 절대적인 2가지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2가지 전제는 바로 이것이다.

**1. 국어와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은 얼마나 “꾸준히”하느냐가 관건이다.**

**2. 수학과 사회탐구 과목은 얼마나 “많은”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형성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비한 결과를 얻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생각하라. 적어도 수험생활 중에는 항상 시계를 가까이 두며 자신의 공부량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자신의 시간관리 상태에 주의하면서 공부해야만 자신의 시간관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는 시간이 정해진 레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사용 가능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공부 방법은 적합한 게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세부적인 것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매일 필수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복습이다. 너무 많이 듣지만, 우리가 항상 빼놓는 대표적인 것이지 않나 싶다. 적어도 나는 그랬고, 나중에 매우 후회했다. 복습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할 계획 없이 공부하는 건, 그냥 시간 낭비이다. 입시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레이스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암기력에게는 매우 긴 시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이다. 예습까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고 감히 말해본다. 하지만 복습을 최소 3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이 수능시험장에서 한문제가 기억이 날듯 말듯 한 상황에 좌절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이야기는 논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경험상,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로 세종대 논술은 꽤나 어렵게 느껴졌다. 게다가 위에서도 말했듯, 내신과 논술의 반영비율이 50:50으로 동일해서, 내신이 안 좋았던 나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실질 내신 반영률을 나에게 얘기하시며, 설득해주신 재수학원 담임선생님 덕분에 내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지원할 수 있었다.

세종대에 지원한 이후로는 본격적인 세종대 논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종대 논술은 그 형식이 꽤나 분명한 편이다. 1번 문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길 요구하고, 2번 문항은 위의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아내, 또 다른 지문의 주장을 비판 혹은 옹호하는 형식이다. 사실 1번 문항의 경우 우리가 항상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각 지문의 핵심 주장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왔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해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2번 문항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2번 문항을 어려워한다. 2번 문항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문에서 비판과 옹호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과 옹호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항이다. 비판과 옹호의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은 사실 자주 연습하면 그나마 늘 것 같지만 대체 창의적 사고능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 고민이 들 것이다.

사실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 계속 같은 형식의 문제를 스스로 부딪쳐 보고, 계속 써봐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논술을 굉장히 못 쓰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내 글을 본 선생님은 “이걸 글이라고 써왔냐.”라고 하셨다. 하지만 난 시험 직전까지 꾸준히 글을 썼고, 늘지 않을 것 같던 글 실력은 어느새 늘어, 결국 난 세종대에 논술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사실 글쓰기 능력은 쉽게 늘지 않는다. 특히 논술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여 그 이해를 바탕으로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평소 글과 친하지 않았던 친구일수록 더욱 힘들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해나간다면 분명 늘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여기서의 제대로 된 준비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논술은 평소에는 독학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좋은 선생님의 첨삭과 지도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만 글을 쓰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강의와 첨삭의 경우에는 리라이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비추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좋은 선생님이란 돈이 많이 드는 유명 강사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좋은 강사란, 3가지를 행하는 사람이다.

1. 조교가 아닌 본인이 직접 1대 1로 마주하며 첨삭을 해주는 선생님.
2. 리라이팅까지 분명하게 책임지고 첨삭하며, 리라이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 시키는 선생님.
3. 각 학교마다의 뉘앙스가 존재한다, 그런 디테일들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내경험상, 대치동보다는 오히려 동네에 많이 계시니 그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제 내가 할 이야기는 대강 다 끝냈다, 중구난방 식으로 풀어나갔지만 어쨌든 내가 이후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하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거의 안 했고, 덕분에 내신은 엉망이었고 논술 실력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다. 재수학원에 처음 갔을 때도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만 하려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매일을 울었다. 하지만 그랬던 나도 어쨌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다. 아마 몇몇에게는 매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나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 해도 상관없다. 당신이 지금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 글을 읽고 당신이 바로 실천하느냐 마느냐 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탓하지 말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라. 그렇다면 꼭 밥이 맛있어서 학교 다닐 맛이 나는 이곳, 세종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 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공학부 황은비

#### 1.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자세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막연하게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 어느 과에 가야할지 정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과연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수의사가 되도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성적으로 수의예과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생명과학실험을 진행하는 토요 심화탐구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룰 줄도 몰랐던 현미경 조작 기술도 늘어 친구들에게 작동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프레파라트 만들기 대회에서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반드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 후에는 시간을 들여 보고서를 꼬박꼬박 작성하였고 선생님께 조언을 들으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저는 생물실험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토요 과학실험탐구반 시간에 배우고 쌓아온 실력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물실험 과제인 조별과제연구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제연구를 하면서 조원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생물실험은 정말 최고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과제연구는 만점을 받게 되었고 생물실험은 전교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심화탐구활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신공부할 시간을 뺏기기도 했지만 저의 꿈을 찾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라는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공학계열로 진학해서 연구원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의사에 대해 고민한 것처럼 자신이 꿈꾸던 것을 현실적인 벽 때문에 이루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면서 자신이 꿈꿔온 길과 가까운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힘들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활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 학생부종합전형

저는 내신이 2점대 중반으로 어중간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저의 진로와 관련된 과학 동아리, 과학관련 상, 과학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막연하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여한 활동의 개수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데 참여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이끌어 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배운 점 등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입학사정관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말만 화려하게 하고 알맹이가 비어있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온 스토리를 적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학사정관들은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울 학생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느 때보다 저의 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갈 학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탐색해서 제대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에 대해서 많이 탐색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목들도 살펴보고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 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 등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입학사정관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말만 화려하게 하고 알맹이가 비어있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온 스토리를 적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학사정관들은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울 학생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느 때보다 저의 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갈 학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탐색해서 제대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에 대해서 많이 탐색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목들도 살펴보고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 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 등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 3. 나만의 공부 방법

저는 저만의 표현으로 정리한 단권화 노트도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개념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그날그날 선생님의 말씀과 교과서, 참고서, EBS강의를 참고하여 한 권의 공책에 저만의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으려다 보니 여러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었고 공책을 정리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그 내용을 따로 메모지에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개념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 자주 질문하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쉽고 새로운 풀이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노트를 다시 찾아볼 때는 저에게 딱 맞춘 정리였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 전에는 필기와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 머리가 복잡했지만,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중요내용이 공책 한권에 집중되어 있어 내용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수학, 과학 성적이 향상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단권화 노트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과목들과 연계해서 공부했던 방법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화학 같은 과학과목은 서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고 ‘어? 이 내용은 화학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네? 더 자세히 공부해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배운 내용들을 체계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멀어지는 듯 가까워지더라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과 김혜은

나는 안 다녀본 학원이 없었다. 간단한 영수학원부터 시작해 피아노, 미술, 주산, 무용……. 간간히는 문화센터에서 레고와 동화구연까지 배웠을 정도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별한 활동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교육열이 강한 건 아니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어서 배워본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나만 힘들어졌고 철새처럼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을까? 음악도 미술도 동화구연과 같은 이야기구연도……. 그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영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고 그 속에 담긴 음악, 미술, 이야기, 무용과 같은 움직임에 빠져들었다. 그래, 이걸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라면 다 해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안 다녀본 학원이 없었다. 간단한 영수학원부터 시작해 피아노, 미술, 주산, 무용……. 간간히는 문화센터에서 레고와 동화구연까지 배웠을 정도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별한 활동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교육열이 강한 건 아니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어서 배워본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나만 힘들어졌고 철새처럼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을까? 음악도 미술도 동화구연과 같은 이야기구연도……. 그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영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고 그 속에 담긴 음악, 미술, 이야기, 무용과 같은 움직임에 빠져들었다. 그래, 이것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라면 다 해볼 수 있을 거야.

인문계 중학교를 다니던 나는 미래에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막대한 꿈을 가지고 예술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때의 나는 영화는 어찌되었든 스토리의 전달이니 먼저 이야기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에서 경기권까지 와 예술계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글만을 집중해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아차, 싶었다. 나는 결국 문예창작과의 진학에 집중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나는 과내에 있는 영화 동아리에서만 영화 공부를 하고 단순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내 꿈은 서서히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남아있었는지 나는 시나리오 대회에 끊임없이 투고하고 수상하며 영화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중 하나가 세종대학교 시나리오 대회였다. 나는 이 대회를 고등학교 일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수상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쓴 시나리오가 나의 첫 창작 시나리오였고, 형식이고 내용이고 모두 무시한 채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난 가능만 하면 그 시나리오를 다시 내 품 속으로 데리고 오고 싶을 만큼 그 시나리오가 그림고 그림다.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나는 그 대회를 계기로 시나리오 쓰기를 포기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느꼈던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문 틈 새로 흘러나오는 빛과 같은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것 같았다.

세종대학교 시나리오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고등학교 삼학년 때의 일이다. 이학년 때는 기회를 놓쳐 참가하지 못했고 딱 2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다시 한번 제한시간 내에 시나리오를 썼다. 단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최대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의미가 잘 전달되기를 바랐다. 다행히 그것이 잘 전달되어 수시 원서를 쓰기 한두 달 전에 수상 소식을 알고 영화예술학과 특기자전형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세종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을 받은 것은 참가 자격만이 주어진 것이기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해야 했다.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다른 대학의 자기소개서에 비해 글자 수가 절반정도 되었다. 짧기에 더 어려웠다. 내가 해왔던 일들을 더 함축적이면서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내가 경험한 일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느낀 바를 서술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서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면접에서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나는 그 영화를 좋아하기에 당당히 써놓았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 관람금지 영화이기 때문에 보기에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 소설을 읽었다. 영화 역시 유명하다고 하기에 뒤늦게 보고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소설을 읽어서 영화를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 삼년동안 책을 많이 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당황해 우물쭈물 대답을 늦췄다면 나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학과든 독서량은 매우 중요하다. 책은 나를 기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섯길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서 말하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접관의 말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읽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시 기간이라고 책읽기를 미루지 말고 읽고 있던 것이 있다면 계속 읽기를 추천한다.

수시 준비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과 많이 다투었던 것 같다. 그도 그렇게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의 면접 시간과 내가 준비해오던 문예창작과의 실기 시간이 절묘하게 겹쳐버렸다. 나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망설이지 않고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의 면접을 선택하였다. 차등 순위를 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수상 발표가 나기 전까지 영화 관련 학과에 대한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다.

문예창작과와 영화과를 같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고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나는 6개의 수시 중에서 영화관련 학과로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유일하게 지원했다.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했다. 죽어도 이게 하고 싶다는 내 안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야만 했다. 사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과에서는 다른 과로 진학한다고 피력하면 대체로 반대한다. 아무래도 이런 특수한 과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생활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걸 여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욱 학교생활에 열중했다. 영화과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지, 영화과 진학을 인생의 최종목표로 둔 것이 아니다. 영화과에 진학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나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

어느 것 하나에 몰두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그 몰두가 무너지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분에 빠진다. 그렇다고 몰두하지 않으면 노력해온 것들이 흐지부지 배수관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처럼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다. 몰두는 중요하다. 하지만 후회 없는 몰두를 위해서는 나는 이거다, 싶은 결론을 빨리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화’였다. 그래서 나는 영화 창작 관련 강의도 꾸준히 찾아 듣고 영화를 이론적으로도 접근하기 위해 미학이나 철학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성적 유지와 봉사활동 또한 잊어서는 안 될 나와 의 약속이었다.

지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해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곧바로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도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또 나는 오히려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신입생들끼리의 짧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 곧 상영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영화'라는 것을 배우기보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다. 쉽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기분이다. 어미 새가 어린 새들에게 날갯짓을 가르치기 위해 낭떠러지에서 어린 새들을 툽, 건드린다. 어떤 어린 새는 날개를 펴 힘겹게 하늘을 날고, 어떤 어린 새는 그대로 땅에 추락해버린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다. 첫 날갯짓이 무조건 성공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이 기분을 잊지 않은 채 앞으로 많은 영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무언갈 할 가능성이 있기에 태어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참 짧은 인생동안 많은 것들을 해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은 없었고, 시간 낭비였던 것도 없다. 모두가 그렇게 자신의 '지금'에 열중한다면 아마 내가 원하던 결말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이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제학부에 16학번으로 입학한 이소정입니다.

저는 이번 16학년도에 진행된 논술고사를 통해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부 논술고사의 경쟁률은 40.91: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저는 저만의 수험 전략을 통해 당당히 합격통지서를 쟁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수험 생활 및 공부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를 합격 목표로 삼은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주어진 쟁점에 관하여 타인과 의견을 공유하고 논쟁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한 재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자 했고, 저의 견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져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언어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오로지 한국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제학부’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저의 이러한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대학교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학교가 바로 세종대학교였습니다. 세종대학교 국제학부는 타 대학과 달리,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으로 학우들에게 최대 2년의 복수학위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가 세워진 이후, 저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시 전형을 선택할 때에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높았기에, 과감히 논술고사 전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고사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이 이에 대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종대학교의 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는 수능 등급 2개 합 5가 최저 기준으로서, 낮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능과 논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일주일 중 이틀은 논술공부에, 나머지 5일은 수능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목표가 세워진 이후, 저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시 전형을 선택할 때에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높았기에, 과감히 논술고사 전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고사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이 이에 대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종대학교의 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는 수능 등급 2개 합 5가 최저 기준으로서, 낮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능과 논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일주일 중 이틀은 논술공부에, 나머지 5일은 수능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먼저 **수능 공부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 저는 우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수능은 밤에 보는 것이 아닌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늦은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다음날 낮까지 비몽사몽 하는 공부습관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벽 5시 40분에 기상하여 6시부터 아침 자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자습은 국어의 비문학 독해로 시작했는데, 수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매사 진중히 임했습니다. 세종대학교 16학년도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내신과 논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특징이 있었기에 내신 또한 등한시 여길 수 없음이 이에 대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는 대신 자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였습니다. 10분의 짧은 쉬는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와 자습실에서 밥을 먹으며 수능 특강 혹은 인터넷 수능과 같은 수능 연계과목의 영어 지문을 독해했습니다. 또한 밥을 다 먹은 이후에는 영어듣기연습을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시간이 바로 수능시험장에서는 영어듣기가 진행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 학교가 끝난 직후에는 바로 학교 자습실에서 자습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때의 자습시간은 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분석할수록 평가원의 기출 경향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단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면 저는 항상 순수 자습시간이 11시간 이상 나왔고, 결국 이러한 저의 판단과 노력은 수능시험장에서 결과로 보답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공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주일 중 이틀을 논술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굳이 이틀을 잡아 공부한 이유는 하루는 개념을, 하루는 문제풀이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논술의 개념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논술에 대한 틀을 잡았습니다. 논술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파악했고, 이후 글을 쓰는 방법 및 개요 짜는 방법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의 날에는 목표로 한 세종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기출문제야 말로 세종대학교가 원하는 인재 상을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글을 다 쓴 이후에는 모범 답안을 출력하여 나의 답안과 비교해 보았고,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느 점이 달랐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하며, 이에 맞춰 글을 써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논술고사 3달 전부터는 주어진 시간보다 10분을 줄여 글을 쓰는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10분을 제외한 이유는 논술고사장에서의 생각지도 못할 여러 변수들에 대한 시간과 다시 읽어보기 위한 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썼던 모든 글들을 모아 이동 시간에 짹짹 읽어보는 방법 또한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같더라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다시 써 볼수록 더 좋은 글과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글로 풀어낸 저의 노력 안에는 담기엔 너무도 많은 고민과 좌절, 시행착오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아마 예비 세종인들 모두가 겪을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열정이, 목표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평탄치 않은 힘들고 긴장되는 시간의 연속일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시간은 칠혹과 같이 어둡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시간을 잘 이겨냈고, 결국 제겐 세종대학교라는 크고 밝은 태양이 떴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에게도 내년 2017년도에는 세종대학교라는 힘찬 태양이 뜨길 기원하며, 함께 세종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합격하고 싶다면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통계학부 이현승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통계학부 16학번 이현승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 전형은 정량적인 평가 이상의 힘을 가진 정성적인 평가 기준으로 학생의 꿈과 가능성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제가 창의인재 전형을 통해 세종대학교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 저의 어린 시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대공원을 놀러왔다가 구경했던 세종대학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정문과 매 시각에 울리는 장엄한 종소리는 가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신없이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진학에 대해 고민하던 중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행복한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시던 세종대학교 친구총장님의 취임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중학교 때 보았던 세종대학교의 웅장함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세종대학교에서 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매주 오는 수학 학습지를 보며 숫자와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학으로 돌아가고, 수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흥미가 진로가 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주셨고 저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제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사회 문제 해결을 수학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수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찾아나가기 시작했고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면서 수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세종대학교 수학과통계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고등학교 시절을 중점적으로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시절 제 모토는 ‘할까 말까 할 땐, 하자!’였습니다. 성격상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했던 저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좌절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간 환경 캠프에서 만났던 멘토형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모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수학과 통계학으로 정했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점점 악화되는 환경을 위해 환경 과학 동아리에서 교외 자원순환 공모전 활동과 교내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내 방송을 맡아 전교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내 과학 영재반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심화 공부를 하고, 심화된 환경 과학 공부를 위해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2학년 때는 학급 내에서 친구들을 위해 시험 1~2 주 전부터 국어 시험 프린트를 직접 밤새 만들어 친구들에게 내부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자신이 지원할 학과에 관련된 스펙만 쌓아도 괜찮지 않나요?, 왜 굳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자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학과 등을 떠나서 정말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해서 얻는 성공과 실패는 모두 좋은 인생의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자면 토레상담반 활동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문 상담사도 아닌 토레들인데 얼마나 도움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 개월의 상담사 활동을 받고 정말로 내담자 친구를 만날 때까지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레 친구를 상담하면서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담이 끝나고 저는 상담 받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 역시 도움이 되었는지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얻을 수 있는 점은 모든 일은 밀쳐야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에서든 실패에서든 뭐든지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 **두 번째,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름이 됩니다.**

뻔하디 뻔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겪어보니 정말로 힘든 과정 후에 제 자신이 성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들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실패와 고난이었습니다. 전교회장이 되기 위해 몇 달을 준비했지만 전교회장 선거에서 떨어져보고, 교내에서도 친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학생회장에서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을 쓰기 위해 밤을 새우고, 다들 즐거웠던 점심시간에 나 홀로 끼니도 거르며 논문 발표 준비를 했던 기억들은 제게 정말 잊혀 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실패한 활동 후에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반성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전교회장 선거에서 왜 3학년 선배들의 표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 ‘논문의 준비 과정에서 왜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을까?’ 등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저는 친구들의 신뢰를 얻어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할 수 있었고, 교내에서 있었던 많은 논문 발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해낸 성공보다는 실패와 고난으로 얼룩진 성공이 더 비싸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세 번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방과 후에 하는 청소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친구와 선생님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역지사지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야 말로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공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충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충고와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다음부터는 실천하세요!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를 유념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보내다 보면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면 기회는 분명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입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어서 세종대학교에서 당신의 노력과 재능을 알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세종대학교에서 뵈겠습니다.

P.S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 때가 좋은 거야’라는 말을 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지나고 나니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심지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당장 돌리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사실 지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이해한다 해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윗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윗사람의 윗사람들은 그 아래 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청춘은 청춘에게 너무나 아깝다.’입니다.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청춘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정말 의미 있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현재를 즐기세요.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함께 노력해봅시다.

저가 고등학교 입시 시절을 끝내고 이야기해줄 말은 ‘치열하되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생각보다 세상이 따뜻하지 않아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해주세요. 남은 고등학교 시절 보람차게 보내시고, 입시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 모두 있길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학에 왔다

자유전공학부 윤종현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6학번 윤종현입니다. 저는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약 4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로 합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종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들을 전하러 합니다.

세종대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셨던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10년간 근무하셨기에 저도 어릴 적 세종대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세종대학교에 학생으로서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남들처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내신이 2.4등급 정도였고 딱히 학생부에도 동아리 활동, 시상내역, 간부 활동 등 대학에서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수시전형에서 쓸 수 있는 전형은 논술우수자 전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대입에 도전하였지만 현역 때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논술 공부를 하다가 수능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입의 본질은 수능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수시전형이 정시전형의 비중보다 훨씬 크지만, 수시전형에서도 수시 최저 등급을 요구할 정도로 꼭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물론 논술 쪽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없애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학교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논술을 잘 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②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불안해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능이 코앞에 다가올수록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좌절감과 두려움이 앞서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하기 보다는 이것저것 건드려 보기만 하고 제대로 체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러한 상태로 수능에 응시하였고 평균 3.8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어떤 대학에도 최저를 맞출 수 없었고, 정시로도 인서울은 불가능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살아오면서 깊은 패배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당시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5 수능이 끝나고 한 달 정도 고민한 뒤 결국 재수를하기로 결심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재수 혹은 그 이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해준다고 하여도 재수 이상부터는 부모님이 지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저를 믿고 재수비용을 지원해주셨고, 대학에 합격한 지금도 부모님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재수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최대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위에 적어놓았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시 대입에 도전해야할지를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수시전형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6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시까지 바라보자는 입장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현역 때처럼 하기보단 논술과 정시의 비중을 밸런스 있게 조절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가령 정시공부는 매일매일 유지하고 논술공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각각 3시간 정도씩 투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제가 세운 방향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능 대비 각 과목별 공부법

**국어** : 아침에 처음으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의 시작을 국어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국어공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했던 국어 공부는 주로 비문학과 문학 2지문 정도를 시간을 재서 풀고 이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썼던 것은 평가원표 기출문제였는데 그 이유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고 아직 평가원의 국어 영역에서의 논리성을 따라갈 만한 교재나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의 화법과 작문 영역이나 문법영역은 따로 시간을 내서 풀었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ex. 문법 개념부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학** : 문과생에게 수학 같은 과목 경우는 혼자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해설지를 봐도 왜 이렇게 풀이되는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과학원을 등록하여 일주일에 1번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한 파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후 그에 관련된 예제들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었고, 이후 모르는 것들은 따로 물어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외에는 부족했던 단원 및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개념서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수학 공부의 정도는 '양치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양치기'하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그것은 생각 없이 문제들을 마구잡이로 푼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학영역에서의 '양치기'란 틀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여 체화한 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며 마치 구구단을 안 보고 외우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숙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뒤, 개념을 잡은 후엔 평가원표 기출문제부터 시작하여 사설문제까지 도전했었습니다.

**영어** : 일단 저는 영어 영역에서 해석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해석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어장을 하나 마련하여 단어를 열심히 외웠고 기초구문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EBS나 수능기출에서 안 읽히는 문장들은 따로 모아 문장노트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장노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여 체화시킨 후 이후에 비슷한 형식의 문장이 나오면 바로 해석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해석력이 뒷받침 된다고 느꼈을 때는 수능 기출문제와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여 각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접근법을 세웠습니다. 수능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빈칸 영역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택지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 후 직접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자 정도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EBS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간추려 미리 예상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회 탐구** : 사회 탐구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처럼 깊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 탐구 영역도 논리성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념암기가 80 ~ 90 %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을 외울 수 있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사회 탐구만큼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나 개념서로 혼자 개념을 정리하기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엔 평가원 기출문제 및 EBS 문제집을 풀며 정리를 하였습니다.

## ② 논술

논술을 고3때에 좀 늦게 준비하였습니다. (7 ~ 8월) 수능과 균형 있게 준비하려면 일찍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4 ~ 5월 정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투자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을 3시간씩 투자 하였습니다. 논술은 따로 고액의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저렴한 온라인 과외를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처음엔 고액의 대치동 학원에 다니며, 직접 대면 첨삭을 받는 수험생들에게 밀릴까 봐 걱정이 많았지만 이내 안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과외 선생님께서도 논술 관련 인터넷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셨고, 무엇보다 본인 역시 논술전형 합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시각에서 첨삭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과외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같이 듣는 다른 학생들의 글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쓴 글만 읽고 첨삭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나를 파악하면 훨씬 더 양질의 글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술 역시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하였는데, 이 때 목표로 하는 한 학교만 파기보다는 비슷한 경향을 가진 대학들의 기출문제까지 풀어 대비하였습니다. 결국 논술 공부의 핵심은 양질의 첨삭과 기출문제로 대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후회하게 된다.

자유전공학부 이민구

이렇게 방향을 잡고 수능 때까지 달려 나갔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응원하는 저의 가족들, 친구들을 생각하며 동시에 고3때의 수능 이후 악몽 같은 시간을 회상하며 제 자신을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능과 논술고사에 응시후 2015년 12월 9일 전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 혹은 미래의 세종인들에게 감히 조언하고자 합니다.

①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대입은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평소 잘했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부디 손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마십시오.

② 수능이든 논술이든 어떤 시험을 보게 되건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십시오. 기출문제란 그 시험의 출제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틀이자 방향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보면 새로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같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논술도 매년 같은 주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학들끼리 서로 비슷한 주제를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긴 수기를 읽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6 학년도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이민구입니다. 저는 흔히들 만학도 라고 부를 나이에 뒤늦게 다시 대학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입니다. 수능공부를 한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행 수능 체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제가 고등학생 이었을 때와는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학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2. 당부의 말씀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 분들이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서서히 하나둘씩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꺼라 짐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마음만 급급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6학년도 수능을 치르기 전에 2015학년도 수능을 시험 삼아 응시했습니다. 당시의 국영수탐 평균 등급은 4.5 등급이었고 백분위 합은 240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건 2월부터였는데 6월 평가원에서 국영수탐 평균 등급이 1.5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저와 같은 성적 상승사례가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가능성은 0%가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달성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목별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3. 영역별 공부방법

### (1) 수학영역

저는 먼저 수학영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과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기에 심지어 수포자 라는 단어까지도 생겨났지만 수학은 문과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과목입니다. 많은 문과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 있지만 저를 비롯한 제 주변 사례들을 참고하면 성적 상승이 가장 빨리 일어난 과목이고 시험에 따른 편차가 적었습니다.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수학이 기호로 표시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국어나 영어 과목은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국어는 한글로 써 있고 영어는 단어 몇 개만 알아도 대략적인 뜻을 알 수 있지만 이에 비해 수학은 기초적인 공식을 모르면 아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영역에 비해 거부감이 큰 것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 이긴 하지만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유도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식을 암기만 해서는 응용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의 유도과정을 이해를 해야 해당 공식이 사용되는 문제가 응용되었을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많은 문과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학은 국어, 영어 과목에 비해 기초개념을 요구하는 양이 적습니다. 이는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7차 교육과정 이래로 문과생들이 응시하는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나오는 개념에서 출제되고 중학생, 고1에서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는 적은 양만 출제되고 나온 것만 다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개념이 반복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6,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모두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점수도 동일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덜한 과목이며 가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니 거부감을 떨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2) 국어영역

국어영역의 경우 고득점을 받는 학생이던 그렇지 못한 학생이던 간에 가장 거부감이 없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한국어를 사용해 왔기에 언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이 자연스레 쌓여왔습니다. 때문에 자칫 국어영역을 쉽다고 여길 수 있지만 공부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100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국어 영역을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는 글을 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쉽게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국어 영역에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데에는 글을 읽는 속도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읽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지 못해 다시 읽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할 때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읽고 나서 내용을 1~2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문법 같은 경우 암기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쓰기, 문학,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형식만 다를 뿐이지 지문을 읽은 뒤에 이 지문에서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수학과는 다르게 성적이 오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하루에 2~3 지문을 꾸준히 반복연습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영어영역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법입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단어를 다 알아도 해당 문장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어려워진 것이 영어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영어 지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장의 길이가 2~3 줄 이상 긴 문장이 출제되기에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 그리고 꾸며주는 수식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문법과 병행하여 공부해야 할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암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다보면 너무 지루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할 때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길이나 다음 수업 중간 쉬는 시간 같이 짧은 시간에 단어장을 꾸준히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단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를 눈으로 계속해서 보다보면 지루하지 않고 저절로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유형별 독해와 같은 문장을 읽는데 필요한 스킬은 기본적인 문법지식과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익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험이 다가 온다고 절대 서두르지 말길 바랍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 4) 탐구영역

탐구영역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2가지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목별로 공부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다르기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지에 따라 유불 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당 해년도 수능이 국영수가 쉽게 출제된다면 탐구영역의 점수에 따라 대학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수능기조가 유지되는 현행 체제에서 탐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응시인원의 수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윤리, 사회문화, 지리 과목을 많이 선택합니다. 인원수가 많은 과목의 경우 그만큼의 다양한 성적 분포의 인원들이 있기에 인원수가 적은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탐구 영역은 국영수에 비해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1~2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뀝니다.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20문제를 전부 맞출 정도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피하시길 권고합니다. 응시인원수가 많은 과목 중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꺼라 생각합니다.

## 4. 정리

지금까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답노트라든지 나만의 특별한 공부비법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쓰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3등급 이하의 성적일 텐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차 강조 드리지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문제집을 여러 권 풀거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급급해서 성적은 나오질 않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했지만 6월 평가원에서의 성적이 급상승 된 것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1월의 수능 이전까지의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보시길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사, 좋은 교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를 쉬게 되면 그 하루 쉰 것을 보충하려면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1시간씩은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쉬게 된다면 2~3시간씩은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1년 이상의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고 공부를 쉬고 싶다는 유혹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습관이 배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말 놀고 싶은 날에도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 5. 나가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 100% 보장되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이 다르기에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운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노력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후회가 되어 눈물 흘리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모의 평가에 비해 수능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회가 되는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내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기에 비록 아쉽지만 결과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수능이 끝나고 반드시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하루하루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으로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글을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세종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웃는 얼굴로 마주하길 바랍니다.

## 6년간의 노력의 결실

###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이지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방학 때마다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유럽, 호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지니신 부모님 덕분에 다양한 세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행을 통해 자립심과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얻었으며 호텔리어가 되고자 하는 명확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세계 다양한 호텔들을 다니면서 호텔 브로슈어를 챙겨와 차곡차곡 파일 철에 보관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어린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제가 느끼는 호텔에 대한 평가까지 세심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매 방학 때마다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다보니 제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호텔’이 되었고, 호텔리어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학생이라 직접 호텔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잡지나 호텔 관련 도서도 틈틈이 읽으며 호텔리어가 되는 것을 항상 상상해왔습니다. 글로벌 인재에 부합하기 위해 꾸준히 영어와 중국어회화를 익히고 각종 교내 외국어 대회에 매 학년마다 참여하여 영어 에세이대회, 영어권문화 비교연구대회, 중국어 동화구연대회 등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활동을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입학사정관께 자랑하고 싶어서 세종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인 ‘창의인재’전형을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학업에 치중하는 삶보다 학업과 제 꿈을 찾아가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해왔던 다양한 활동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3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학생회활동, 관광동아리 활동, 신문 활용 NIE 활동과 수학을 무서워했던 제가 수학을 극복하고 1등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먼저 학업적 측면에서 저는 수학을 무서워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의 저는 간단한 함수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첫 수학시험에서 절반도 맞히지 못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인생도 반쪽으로 두 동강 날까 두려워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저의 문제점이 두서없이 여러 노트에 문제를 풀거나 풀이 과정을 대충 문제 아래에 적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학습 플래너와 수학 연습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학 30제라고 적힌 학습 플래너는 저의 학창시절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 자습시간에 꾸준히 계획한대로 수학공부를 하였으나 점수가 기적적으로 향상되지 않고 더디게 오르자 동기부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끝에 오른 2학년 첫 모의고사 수학점수를 보며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가능성이란 짜릿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미적분’과 같은 취약한 부분은 토요아카데미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 유형을 접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응용문제를 해결해 가며 도함수 개념과 적분을 활용한 추론 능력을 향상하다보니 자연스레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노력은 2학년 말에 처음으로 출전한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값진 동상수상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입상을 계기로 3학년 댄 더 심화된 수학공부를 위해 친구들과 ‘데카르트’라는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1년 수학 공부 계획표’를 제작하고 모듈별 활동을 통해 고난도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했으며 자신 있는 문제는 칠판 앞에서 부원들에게 설명해주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장과정에 일기장과 같은 학습 플래너는 창의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학습 플래너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토대로 수학은 ‘정직한’ 학문으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비례함을 느꼈으며, 비록 학업에서의 경험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시련이든 저의 잠재성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내 관광동아리 부원으로서 우리 고장, 우리 땅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관광경영동아리 ‘트레이스’를 조직하여 제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트레이스’에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전라남도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관광/ 호텔 홍보책자를 만들고 ‘영산강 도보 종주’라는 관광아이템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개발한 관광 상품을 시험하고자 2학년 여름방학을 계기로 ‘영산강 도보 종주’에 참여하여 2박 3일 동안 담양 용추계곡에서 나주까지 영산강을 따라 총 9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조장으로서 지친 부원들을 격려하며 갈등 없이 완주를 도왔습니다. 직접 제 고장을 걸으며 느꼈던 고향 땅에 대한 애착의 정서를 바탕으로 ‘영산강 자전거 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영산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관광경영동아리 ‘루트’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멘토링과 논문에 대한 조언이 소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의 결과로 교내 소논문 발표대회에서 입상하였고 제 꿈을 향해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3년간 부대표와 대표로 활동한 신문 활용 동아리 ‘누땡’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Korea Herald 학생기자단’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종이신문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 누땡 부원들과 함께 아침마다 전 교실에 신문 배달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맡고, ‘한국 언론 진흥 재단’에 연락하여 초빙한 강사님에게 전문적인 신문스크랩의 방식과 신문의 구성요소 또는 사회적 역할 등 신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동아리에서 배웠던 정보를 나누고자 ‘신문권장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재학생들의 신문 읽는 실태를 조사하고자 신문구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문 구독률이 매우 저조하여, 신문읽기를 권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홍보지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반에서 강사님에게 배운 신문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부원들을 격려했더니, 2차 설문조사에서 신문을 읽기 시작한 학생들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긍정적인 수확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꾸준한 신문 스크랩활동입니다. 신문 스크랩한 것을 판넬에 제작하여 게시판에 설치하는 활동이 중앙일보에도 기사화됨으로써 ‘학교 명예 선양’으로 교내상점을 받고 상금도 기부하여 교내 선행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원들의 ‘좋은 것은 나누자’ 라는 따뜻한 마음 덕에 풍성해진 활동을 남기고자 책자를 만들고, 우수동아리에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의 선도 부원으로 활동한 것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모범’이라는 키워드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에 20여분 빨리 일어나 전교생에게 바른 복장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점심시간에는 ‘잔반 없는 학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사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선후배에게 인사하는 문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학생회와 ‘인사 잘하기’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에 바른 복장 캠페인을 하면서 40여분 넘게 서있어야 하는 남모를 고충도 있지만 평생 꿈인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어 고객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0여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의지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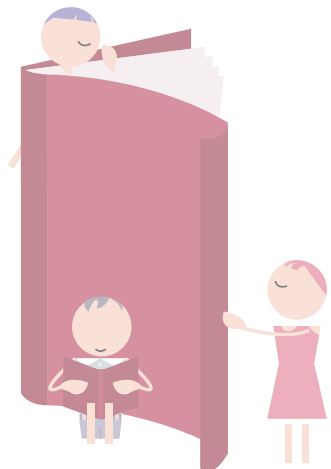
가끔 친한 친구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선도 부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다보면 꼭 규칙에 어긋나게 선처를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정도 중요하지만, 제게 부여된 직책이라는 책임감으로 준법정신을 더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선도부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친구와 시비가 붙었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다가가 편법을 써서 친구를 도와주며 쌓는 우정보다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 정직이라는 신뢰감을 주어 쌓는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저의 입장을 밝히고 친구가 수긍함으로써 시비가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원하는 삶을 위한 두 번의 도전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임채경

또한, 점심시간에 ‘잔반 없는 학교’ 운동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매 끼니마다 엄청난 양의 잔반이 버려지고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실태를 개선하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에게는 사탕을 주었고 잔반을 많이 남긴 재학생에게는 배식 조절 혹은 잔반을 남기지 말자고 권유함으로써 잔반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판넬을 제작하여 일일 남는 잔반량을 측정하여 급식실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도부의 노력으로 판넬에 적히는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재학생들에게 음식량을 절제하는 중용과 남는 음식은 서로 나누어 먹는 배려 등을 갖도록 도와준 저희의 보람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인재로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가졌던 저의 호텔경영학과 입학이라는 저의 꿈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한 저로서는 세종대를 저의 무대로 삼아 학점을 잘 관리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여 누군가의 멋진 추억의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다음목표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추천을 통해 호텔경영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챙기기 좋아하는 저의 성향과 호텔경영인이라는 직업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호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텔경영학과가 유명한 대학을 여러 군데 발견하였고 그 중 가장 오래된 호텔경영학과이자 학생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학교가 세종대학교임을 찾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세종대 호텔경영학과로의 진학이 저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막연하게 지니고 있었던 호텔경영학과로의 진학의 꿈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에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알게 된 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에 지원했습니다.

고3때 수시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인 창의인재전형과 논술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호텔에 관심을 가졌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의 낮은 내신과 부족한 준비로 인해 합격의 문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후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능 성적을 받고 세종대 논술 최저등급을 겨우 맞춘 후 논술 시험을 치렀지만 논술 전형으로도 세종대에 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하던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낮은 점수였지만 미련이 남아 정시 일반전형으로도 한번 더 세종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도전이 모두 좌절된 후에 시작된 재수 생활에서 저는 그렇게도 원하던 세종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고3시절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입학에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내신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기에는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높은 경쟁률로 인해 큰 가능성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6년도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시를 공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성적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주변에 압박이 없다면 나태해지고 쉽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규율이 있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학원을 다니며 재수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고치려고 노력했던 점은 “내가 알아서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공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역 수험생활 중에는 학과 수업을 충실히 듣지 않고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학과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수험생활이 끝난 후 수험생활 패망의 이유를 이것으로 여기고 재수생활 때는 수업 자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오래 입시를 경험하시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수업은 제가 정해놓은 수능 성적 높이기라는 목표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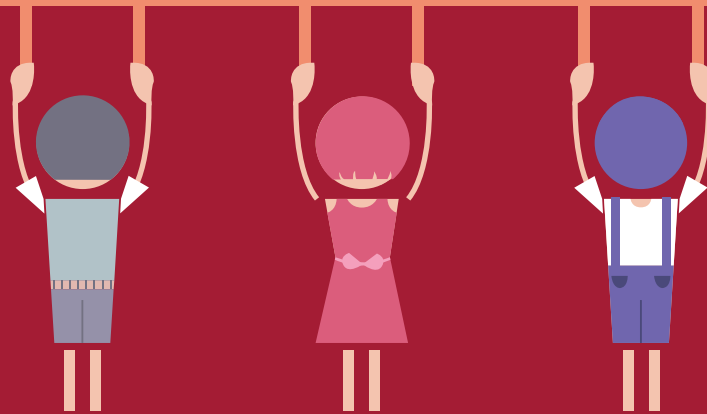
물론 입시 전문 학원이므로 수능에 치우친 강의일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들었던 수업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이 안내해주신 대로 학습하다 보니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지난 수능시험에 비해 아주 높은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든 학원 강의든 자신이 주어진 상황 자체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면 성적은 필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를 목표로 1년 간의 공부를 더 하다 보니 2016년 수능시험에는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에 정시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세종대 보다 높은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저는 하향지원일지라도 제가 계속 목표로 하던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에 지원하여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세종대에 입학하고 난 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고 싶던 공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행복한 일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입학수기를 쓰게 된  
계기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신입생 입학수기  
당선작 모음집

함께 끼  
이루는 꿈



세종대학교